

목차

제1회 고고학 아카데미

고고유적으로 본 인천의 문화 1	03
고고유적으로 본 인천의 문화 2	13
고고유적으로 본 인천의 문화 3	24
인천 지역 고고유적의 발굴성과와 특징	38
고지도로 보는 인천 지역의 옛 풍경	54

제1회 고고학 아카데미

고고유적으로 본 인천의 문화 1

구석기~청동기시대

강평원(한강문화재연구원)

고고유적으로 본 인천의 선사문화

- 구석기 ~ 청동기시대 -

강평원(한강문화재연구원)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한국고고학의 구석기~청동기시대2. 인천지역의 선사문화<ol style="list-style-type: none">1) 구석기 유적2) 신석기 유적3) 청동기 유적 |
|--|

1. 한국고고학의 구석기~청동기시대¹⁾

한국고고학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한민족 혹은 한국문화의 연원이 된 다양한 문화적·역사적 단위의 실체 확인과 성격 규정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역사기록이 남겨지기 이전, 구석기에서 신석기, 청동기시대 초기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의 여러 집단은 국가나 민족 혹은 어족을 비롯한 근대적 개념의 단위로 지칭하고 분류하기 어려운 성격이었다. 따라서 해당 시기의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문화상의 비교연구가 필수적이며, 시대가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넓은 공간적 범위에 걸친 자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구석기시대는 생물분류학에서 유인원과 구별해 사람(hominin hominid)으로 분류되는 고인류가 처음 등장한 때부터 1만 2천년 전 무렵 플라이스토세가 끝날 때까지에 이르는 긴 시간대에 걸친 인류문화의 원초단계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돌을 때려 만든 뿔석기(타제석기)를 사용하던 시대라는 기술발전 단계상의 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구석기인들은 사냥과 채집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였으며, 작은 무리를 이루어 자원이 풍부한 장소를 찾아 이동 생활을 했다. 때문에 이 시대에 움집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강가나 동굴에서 주로 생활 하였다. 한편 뿔석기는 처음에 주먹도끼, 외날찍개 등 직접타격법으로 제작한 몸돌석기가 주로 제작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뿔석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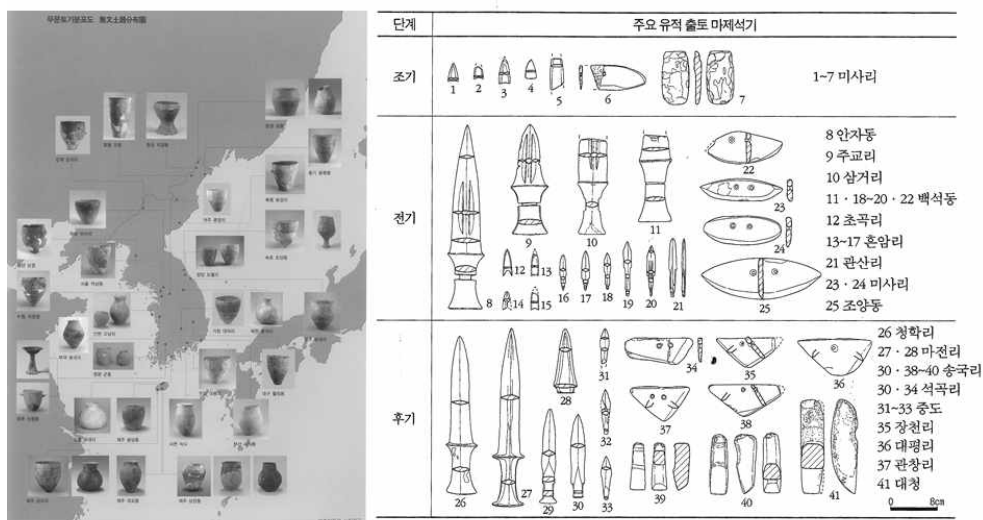
1) 이 부분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한국고고학회, 2010, 『한국 고고학 강의』.

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 2013, 『인천, 발굴? 선사!』.

로 설정하고 있다.

청동기시대는 문헌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고대국가인 고조선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세력과 공존하며 쟁패하던 때이다. 따라서 이시기의 고고학 자료와 문헌기록을 어떻게 연결 짓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청동기시대에 대한 설명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청동기시대 주요 유적 분포

2. 인천지역의 선사문화

인천지역은 서해라는 바다와 한강유역에 인접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선사시대 이래 인류의 생활터전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시대 이후에는 한강유역과 서해안을 잇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유적·유물들이 확인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선사시대 고고유적을 중심으로 인천의 선사문화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 구석기 유적

인천에서 구석기 유적은 2000년에 이후에 확인되었다. 인천 문학동 유적에서 짝개 1점이 확인되었고²⁾, 인천 검단 I 지구에서는 제4기층인 고토양층과 짝개 등이 수습되었다³⁾. 또한, 불로동 유적에서는 고토양층과 뿔석기가 수습되었고⁴⁾, 원당동 유적Ⅱ에

2) 인하대학교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인천 문학동 선사유적』.

서는 구석기시대 문화층과 찌개, 밀개, 굽개, 몸돌, 격지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⁵⁾.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뎡석기들은 몸돌과 격지가 주류를 이루고 성형석기는 많지 않아 인천의 구석기문화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후 2012년 인천 가정동 유적에서 약 300여 점의 뎡석기가 조사되었다. 주먹도끼 1점을 비롯한 찌개, 찌르개, 여러면석기 등의 몸돌석기와 굽개, 흙날석기, 톱니날석기 등의 박편석기가 출토되었다.

인천지역에는 가정동 유적을 제외하면 출토유물이 풍부하지 않아 구체적인 구석기 문화상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인접한 김포지역에서 다수의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었다. 김포 장기지구에서 3개의 구석기문화층과 몸돌, 흙날, 굽개, 찌개, 주먹도끼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⁶⁾. 김포 신곡 3지구에서는 전·중기 구석기문화 양상을 보이는 주먹도끼, 찌개, 가로날도끼 등이 출토되었다⁷⁾.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향후 인천지역의 구석기 유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타격

간접타격

2) 신석기 유적

인천에서 신석기 유적은 주로 해안 연안의 도서지방에서 확인되고 있다. 2000년대

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인천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문화유적 조사보고서』.

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인천 불로동 유적』.

5)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인천 원당동 유적(Ⅱ)』.

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김포 장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5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0, 『김포 신곡리 구석기 유적』.

이전까지는 시도패총⁸⁾, 송산 유적⁹⁾과 같이 야외노지나 불분명한 수혈유구 및 수습유물들이 보고되었으나, 2010년대에 이르러 영종도에서 많은 유적이 조사되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운서동 논들 유적에서 주거지 1동, 적석유구 2기가 조사되어 빗살무늬토기, 갈돌, 석촉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고¹⁰⁾, 을왕동 유적에서는 패총 1개소, 주거지 4동, 수혈유구 2기 등이 조사되었다¹¹⁾. 또한, 삼목도 Ⅲ유적에서는 주거지 10동와 야외노지 18기가 조사되었고, 소량의 빗살무늬토기편, 돌화살촉, 돌도끼 등이 출토되었다¹²⁾. 영종도 유적에서는 주거지 2동이 조사되어 빗살무늬토기편과 갈돌편이 출토되었다¹³⁾. 중산동 유적에서는 주거지 4동, 야외노지 54기 등이 조사되었다¹⁴⁾. 운북동 유적에서는 주거지 19동, 집석유구 81기, 수혈 32기 등이 조사되었고 유물은 빗살무늬토기, 갈돌, 갈판, 석도, 석부 등이 출토되었다¹⁵⁾.

이외에 대규모 주거유적으로 운서동 유적에서는 주거지 66동, 야외노지 12기, 패총 1기, 주혈군 5기 등의 유구가 조사되어 유물은 빗살무늬토기, 석영제석기, 갈판 등이 출토되었다¹⁶⁾. 한강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중산동 유적에서는 주거지 35동, 야외노지 26기, 수혈 509기 등이 조사되었고, 빗살무늬토기, 갈돌, 갈판, 석도,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¹⁷⁾.

인천지역에 본격적인 신석기문화가 시작되는 것은 해안에 갯벌이 형성되고, 강 하구의 지형이 안정되어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된 기원전 5,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이다. 신석기시대 전기(약 기원전 4,500~3,600년)와 중기(약 기원전 3,600~3,000년)에는 20기 이상의 움집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마을이 주로 형성되었다. 신석기 후기(약 기원전 3,000~1,500년)부터는 마을의 규모가 작아져 3~5기 내외의 움집만이 조사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개무지와 야외노지 유적이 증가한다. 유물은 빗살무늬토기를 비롯해서 갈돌·갈판·화살촉(石鏃)·그물추(漁網錘)·굴지구·장신구 등의 석기와 조, 기장과 같은 탄화곡물이 출토되었다.

연평도 일대의 까치산, 소연평도, 모이도 패총에서는 조개류외에 사슴·멧돼지·개 등의 동물뼈와 매가오리·참돔·농어 등의 어류뼈도 출토되어 당시 신석기인들이 육

8) 국립박물관, 1970, 『시도패총(矢島貝塚)』.

9) 박희현, 1996, 「영종도 송산선사유적 발굴조사 개보」,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회보』7,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10)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영종도 논들 신석기유적』.

11)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 『인천 을왕동 유적』.

12)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9, 『인천 삼목도 Ⅲ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3) 고려문화재연구원, 2009, 『인천 영종도 유적』.

14)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인천 중산동 유적』.

15) 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16)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인천 운서동 유적』.

17) 한강문화재연구원, 2009,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지와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식량으로 사용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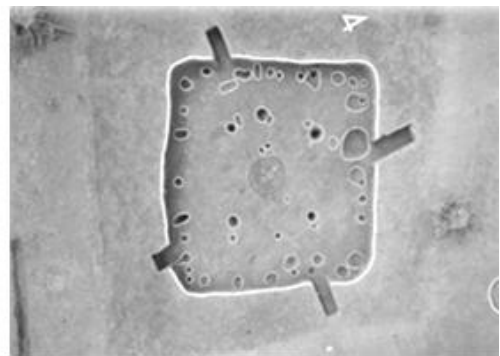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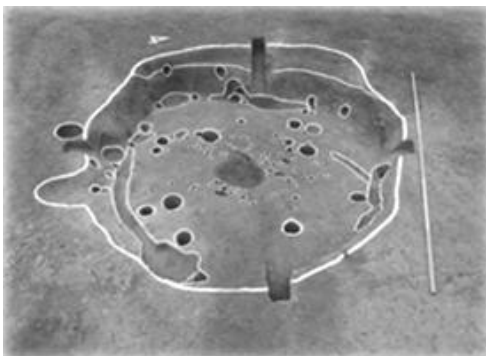
약 3,000년 동안 풍부한 바다자원을 바탕으로 번성하던 인천의 신석기문화는 기원전 1,500년경에 쌀농사를 배경으로 하는 청동기문화가 유입되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든다. 이후 신석기집단의 규모는 작아지고 분산화되어 점점 먼 바다의 섬 지역으로 이동하며, 기원전 1,000년경에는 완전히 해체되어 청동기사회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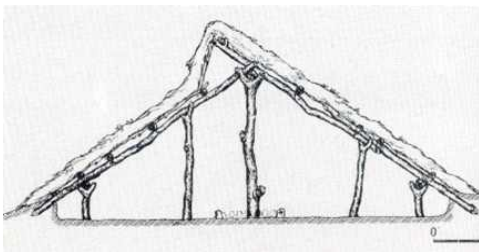
신석기시대 토기



신석기시대 석기



신석기시대 주거지



주거지 복원추정도



주거지 재현

3) 청동기 유적

인천에서 청동기 유적은 2000년대 이르러 각종 개발로 인해 많은 유적이 조사되고 있는데, 크게 주거지를 포함한 생활유적과 고인돌로 대표되는 분묘유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활유적은 문학동 유적¹⁸⁾, 검단 2지구 2구역내 유적¹⁹⁾, 불로동 유적²⁰⁾, 동양동 유적²¹⁾, 원당동 유적Ⅱ²²⁾, 영종도 유적²³⁾, 운서동 유적²⁴⁾, 중산동 유적²⁵⁾, 구월동 유적²⁶⁾ 등이 조사되었다.

인천 동양동유적은 (장)방형의 주거지에 벽주시설을 갖추었으며, 유물 중 토기류는 각목돌대문토기와 함께 이중구연+단사선문과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었고 석기류는 석촉(삼각만입)과 석검(유혈구식), 석도가 공반한다. 이러한 양상은 청동기시대 초기후반에 해당한다.

인천 불로동유적은 장방형의 주거지에 무시설식 노지와 벽구, 주혈 등의 내부시설을 갖추었고, 유물 중 토기류는 이중구연토기와 석기류는 석촉(삼각만입, 일단경식), 석부(합인), 석창 등이 공반한다. 이러한 양상은 청동기시대 전기전반에 해당한다.

인천 원당동유적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I 유형은 장방형의 주거지에 수혈식 노지, 주혈, 벽구, 저장공 등의 시설을 갖추었고, 유물 중 토기류는 이중구연, 공열, 구순각목, 구순각목+공열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석기류는 석촉(이단경식, 일단경식)과

18) 인하대학교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앞의 책.

1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3, 앞의 책.

2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앞의 책.

2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인천 동양동 유적』.

22)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8, 앞의 책.

23) 고려문화재연구원, 2009, 앞의 책.

24)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앞의 책.

25)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앞의 책.

26) 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인천 구월동 유적』.

합인석부, 어형석도가 공반한다. 이러한 양상은 청동기시대 전기후반에 해당한다. II 유형은 말각방형, 원형의 주거지에 수혈식 노지), 주혈, 벽구 등을 갖추었고 유물 중 토기류는 원형 점토대토기와 두형토기, 저부투공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석기류는 일 단경식 석촉, 석부(유구, 편인) 등이 공반한다. 이는 청동기시대 후기 또는 원삼국시대에 해당한다.

분묘유적 중 고인돌은 인천시 남구 문학산 일대를 비롯해 서구 경서동, 중구 운남동·주안동, 연수구 학인동 등지에 산재해 있고²⁷⁾, 정밀지표조사에서 대곡동 지석묘가 조사되었다²⁸⁾. 원당동 유적 I 에서 석관묘 4기가 조사되어 마제석착 1점이 출토되었다²⁹⁾. 경서동 유적에서는 석곽묘 1기가 조사되었고 마연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³⁰⁾.

인천지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초기의 동양동 유적을 시작으로 전기의 원당동, 구월동의 장방형 주거지를 거쳐, 후기의 구월동, 원당동, 중산동의 원형·방형 주거지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집자리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마을의 규모도 점차 축소되거나 해체되면서 서서히 초기철기시대로 이행하게 된다.

대체로 인천지역의 청동기시대 출토유물에서는 석기의 출토비율이 토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특히 검단동과 원당동유적에서 망치돌의 출토량이 많은 점으로 보아 석기제작이 비교적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 토기

27) 우장문, 2004, 『경기지역의 고인돌 문화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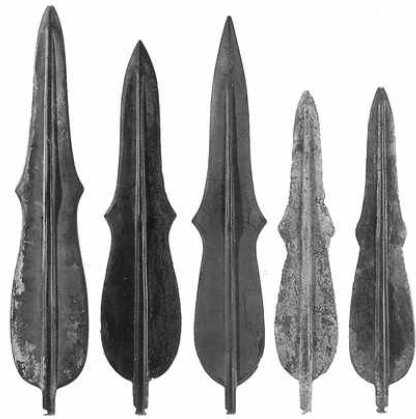
28) 인하대학교박물관, 2004, 『인천 대곡동 지석묘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9)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인천 원당동 유적(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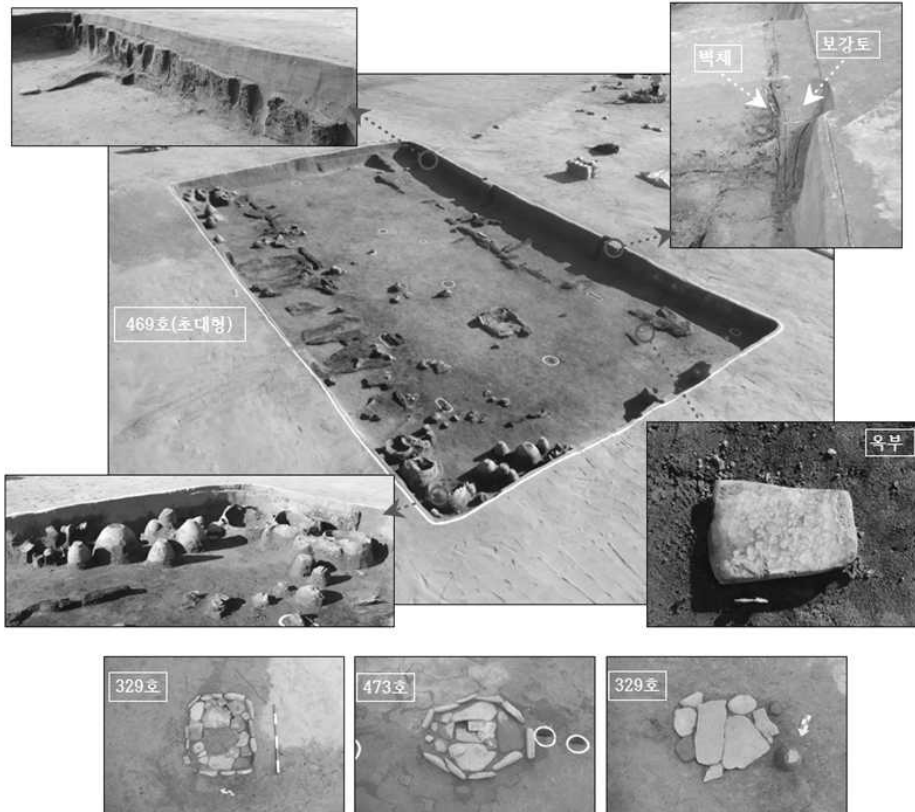
30) 한강문화재연구원, 2010, 『인천 서구 경서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 약 보고서』.



청동기시대 석기



청동기시대 비파형동검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출토유물

제1회 고고학 아카데미

고고유적으로 본 인천의 문화 2

원삼국~삼국시대

권도희(한강문화재연구원)

고고유적으로 본 인천의 문화 2 - 원삼국~삼국시대

권도희
(한강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인천지역에서 조사된 원삼국~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은 주거지, 수혈, 구상유구, 패총과 같은 생활유적과, 분구묘, 토광묘, 옹관묘 등의 매장과 관련된 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인천지역은 다수의 섬과 해안에 접한 지리적 특성상 내륙의 생활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천과 그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구의 형태와 유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문화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인천의 원삼국(原三國)시대 유적

원삼국시대는 삼국시대의 전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청동기의 소멸, 철생산의 성행, 도작의 발전, 지석묘의 소멸, 타날문토기의 출현을 특징으로 시기적으로는 기원전후부터 기원후 300년 까지를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원삼국시대라는 용어대신 철기시대, 삼한시대, 삼국시대 전기 등이 사용되고 있다. 원삼국시대의 사회상은 『사기』동이열전, 『삼국지』위서동이전, 『후한서』동이열전 등의 중국문헌기록을 통해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시기에 해당하는 인천지역의 유적들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천 운북동유적



-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대
- ◇ 조사기간: 2009.09.10.~2010.04.30
- ◇ 주요유구: 원삼국시대 주거지 2기, 수혈 3기 등
- ◇ 주요유물: 오수전, 철경동촉, 분형토기, 옹형토기, 철판 등
- ◇ 참고문헌: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인천 운북동 유적』

2. 인천 운남동 유적



-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대
- ◇ 조사기간: 2007.10.10.~2009.02.02
- ◇ 주요유구: 원삼국~백제시대 패총 6기, 주거지 6기, 수혈유구 47기, 구상유구 32기, 분묘 2기 등
- ◇ 주요유물: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철도자, 철검, 유공철부, 복골편, 곡각기, 패각, 철경동축, 오수전, 동물유체 등
- ◇ 참고문헌: 한국고고학연구소, 2011, 『仁川 雲南洞 貝塚』

3. 강화 교동 대룡리 유적



- ◇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113-5 일대
- ◇ 조사기간:
- ◇ 주요유구: 원삼국~삼국시대 노지 11기, 수혈 15기, 패총 2기 등
- ◇ 주요유물: 중도식무문토기, 장란형토기, 심발형토기, 이형토기 등
- ◇ 참고문헌: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0, 『강화 교동 대룡리유적』

4. 인천 검암동 유적



-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5-1번지 일대
- ◇ 조사기간: 2011.07.18.~2012.05.24
- ◇ 주요유구: 초기철기시대 토광묘 1기
- ◇ 주요유물: 세형동검, 삼각점토대토기, 장경호, 주조철부 등
- ◇ 참고문헌: 중부고고학연구소, 2014, 『仁川 黔岩洞 遺蹟』

5. 인천 만수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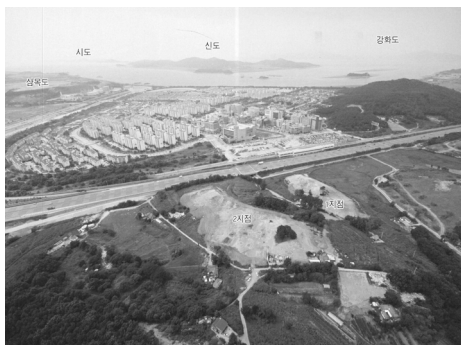
-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770-2 번지 일대
- ◇ 조사기간: 2012.07.24~25
- ◇ 주요유구: 원삼국시대 주거지 1기
- ◇ 주요유물: 장란형토기 편, 용도불명철기 편 등
- ◇ 참고문헌: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2, 『인천 만수동 유적』

6. 인천 중산동 유적



-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대
- ◇ 조사기간: 2007.08.01.~2009.06.20
- ◇ 주요유구: 원삼국시대 주거지 8기, 분구묘 2기 등
- ◇ 주요유물: 원저단경호, 철모, 철촉, 철검, 철부, 소환두대도 등
- ◇ 참고문헌: 중앙문화재연구원, 2011, 『仁川 中山洞 遺蹟』

7. 인천 운서동 유적



-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대
- ◇ 조사기간: 2007.07.02~2008.12.20
- ◇ 주요유구: 원삼국시대 분구묘 1기
- ◇ 주요유물: 원저단경호, 철모, 철촉, 소환두대도, 꺾수문양식, 수정제구슬, 각종구슬 등
- ◇ 참고문헌: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仁川 雲西洞遺蹟』

8. 김포 운양동 유적



- ◇ 위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일대
- ◇ 조사기간: 2007.05.31.~2013.02.26
- ◇ 주요유구: 원삼국시대 분묘 32기, 수혈 9기, 구상유구 3기 등
- ◇ 주요유물: 세형동검, 단경호, 소호, 철검, 소환두대도, 철모, 화살촉, 철부, 철도자, 수정제구슬, 마노제 구슬, 관옥, 금제귀걸이 등
- ◇ 참고문헌: 한강문화재연구원, 2013, 『김포 운양동 유적 I·II』

III. 인천의 삼국시대 유적

원삼국시대의 소국들이 통합과정을 거쳐 고대국가가 탄생하는 단계로 한강이북으로는 고구려, 이남으로는 백제, 신라, 가야가 성립하여 각국의 체제를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시기이다. 시기적으로는 3세기 늦은 단계부터 신라에 의해 통일된 668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당시의 사회상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문헌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인천은 삼국시대 때 백제의 영역으로 발굴조사된 유적은 다음과 같다.

1. 인천 중산동 유적



-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산 92번지 일대
- ◇ 조사기간: 2007.05.16.~2009.09.20
- ◇ 주요유구: 원삼국시대 주거지 1기
- ◇ 주요유물: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주구부토기, 마연직구호, 쇠스랑, 철서 등
- ◇ 참고문헌: 한강문화재연구원, 2012, 『인천 중산동 유적』

2. 인천 불로동 유적



- ◇ 위치: 인천시 서구 불로동 일대
- ◇ 조사기간: 2003.05.02.~2004.10.30
- ◇ 주요유구: 삼국시대 주거지 3기, 가마 1기, 수혈유구 4기 등
- ◇ 주요유물: 완,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기와, 직구단경호, 대웅 등
- ◇ 참고문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仁川 不老洞遺蹟』

3. 인천 장금도 유적



-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대
- ◇ 조사기간: 2006.08.22.~2007.05.31
- ◇ 주요유구: 원삼국~삼국시대 패총 1기
- ◇ 주요유물: 심발형토기, 직구단경호, 평저호 등
- ◇ 참고문헌: 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仁川 長金島 貝塚』

4. 인천 동양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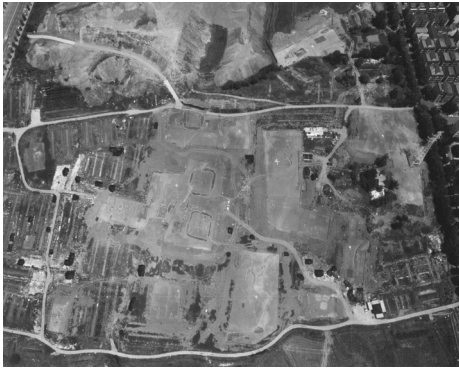
-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306, 153-2번지 일대
- ◇ 조사기간: 2003.10.01.~2004.02.27
- ◇ 주요유구: 삼국시대 주구묘 1기, 토광묘 4기, 옹관묘 1기
- ◇ 주요유물: 발형토기, 단경호, 철도자 등
- ◇ 참고문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7, 『仁川 東陽洞 遺蹟』

5. 인천 구월동 유적



-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산 514-0일대
- ◇ 조사기간: 2011.05.02.~2012.07.23
- ◇ 주요유구: 삼국시대 주거지 10기, 수혈 21기, 주혈군 3기, 분묘 17기 등
- ◇ 주요유물: 심발형토기, 평저호, 직구단경호, 고배, 시루, 방추차, 철검, 철서, 소환두대도, 소호 등
- ◇ 참고문헌: 한강문화재연구원, 2014, 『인천 구월동 유적』

6. 인천 연희동 유적



-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374번지 일대
- ◇ 조사기간: 2010.03.18.~2011.11.28
- ◇ 주요유구: 원삼국~삼국시대 분묘 64기, 삼국시대 주거지 3기 등
- ◇ 주요유물: 완, 대부완, 뚜껑, 단경호, 이 중구연토기, 발형토기, 이형토기, 환두도, 철모, 철정, 철검, 철촉 등
- ◇ 참고문헌: 서경문화재연구원, 2013, 『인천 연희동 유적』

7. 김포 양곡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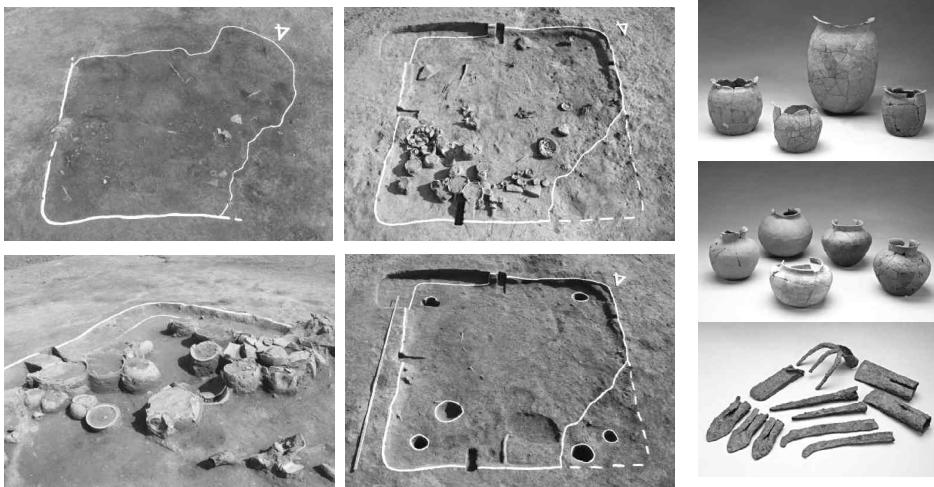
- ◇ 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구 래리 일대
- ◇ 조사기간: 2008.10.06.~2009.09.15
- ◇ 주요유구: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5기, 수혈 8기, 분묘 5기, 구상유구 61기 등
- ◇ 주요유물: 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단경호, 직구호, 주구부토기, 중도식 토기, 시루, 대옹, 철경, 철서, 주조철부, 철도, 철모 등
- ◇ 참고문헌: 경기문화재단, 2012, 『金浦 陽谷遺蹟』

8. 김포 양촌 유적



- ◇ 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유현리, 양곡리 일대
- ◇ 조사기간: 2007.11.19.~2010.10.03
- ◇ 주요유구: 원삼국~삼국시대 주거지 32기, 분묘 43기 등
- ◇ 주요유물: 완, 심발형토기, 장란형토기, 대옹, 방추차, 파수부동이, 단경호, 환두도, 철모, 철부, 철검, 구슬 등
- ◇ 참고문헌: 고려문화재연구원, 2013, 『金浦 陽村 遺蹟』

IV. 고대인들의 인테리어



인천 중산동 유적 백제주거지 및 출토유물

V. 무역의 허브(Hub)

1. 원거리 교역

동일지역권을 넘어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유물들이 확인될 경우 이를 교역품 또는 위세품으로 판단한다. 인천지역에서 확인되는 유물 중 오수전, 철경동축, 낙랑계토기, 금제귀걸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수정제구슬, 세형동검 등 역시 이들지역에서 생산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교역품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

◎ 오수전(五銖錢)

수(銖)는 무게의 단위를 나타내며, 1수는 조나 기장의 100립(粒)을 말하는 것으로 오수전의 무게는 약 3.25g에 이르는 동전이다. 漢武帝 4년(BC119)에 처음으로 주조되어 일정시기 주조가 중단된 적도 있지만 당(唐)대에 이르기까지 오랜기간동안 사용되었다. 시기적인 변화는 글자체의 변화와 재질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五’자의 형태가 직선적인 것에서 점자 곡선적인 것으로, 재질은 청동에서 철제로 변화된다.

서북한지방에서는 낙랑군의 영향으로 화폐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한강이남에서는 패총, 주거지, 무덤 등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주로 출토량이 소량이고 분묘에서 다수 출토되어 부장품 또는 위세품 등 여러 가지 기능과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중부지역에서 화폐로서 기능을 가지고 유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운북동 출토품은 생활유적인 주거지에서 십여점이 꾸러미 상태로 발견된 것이 특징이다.

* 주조방식

◎ 철경동촉(鐵莖銅鏃):

촉신은 청동이며 경부는 철제로 제작된 화살촉을 말한다. 촉신의 형태에 따라 삼릉촉(三稜鏃) 삼익촉(三翼鏃)으로 분류되며 삼릉촉은 혈구의 유무와 개수에 따라 세분된다.

한반도에서는 포천 금주리, 가평 대성리, 양평 양수리 상석정, 시흥 오이도, 철원 와수리, 신창동 저습지, 사천 늪도, 경주 구정동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 주조방식, 같이 사용된 도구



인천 운북동 5-2지점 2호 주거지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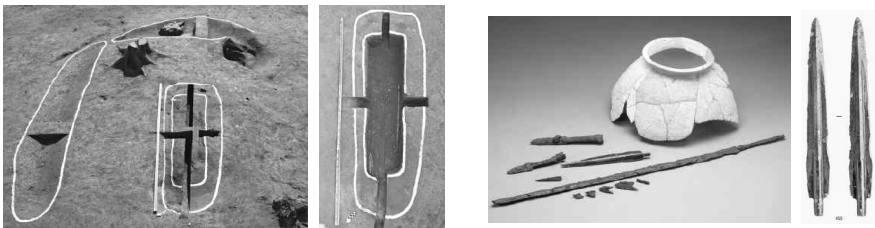
◎ 낙랑계토기

낙랑토기는 낙랑에서 만들어 사용한 토기를 말하며 중부이남에서 확인되는 낙랑계토기는 낙랑토기의 제작방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토기를 말한다.

낙랑토기는 재질에 따라 석영혼입계토기, 활석혼입계토기, 니질계토기로 구분된다. 석영혼입계토기는 백색옹 등, 활석혼입계는 화분형토기, 니질계토기는 단경호 및 분형토기 등이 해당된다.

인천 운북동과 영종도에서 확인되고 있는 토기는 분형토기와 백색옹으로 기형은 낙랑토기와 동일하지만 태토나 제작기법에서 다소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 기술의 이주, 공인의 이주, 수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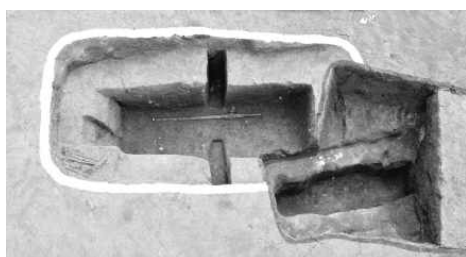


김포 운양동 1-11지점 27호 분구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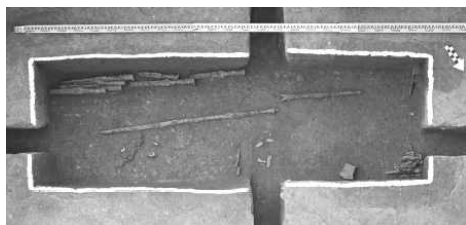
◎ 금제귀걸이

한반도에서 현재까지 가장 이른 금제귀걸이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삼국시대 귀걸이와는 그 형태가 다소 달라 주목받았던 유물이다. 끝부분은 봉의 형태로 말아 제작하였으며 이들과 유사한 것이 중국 길림성 유수현 노하심유적과 압록강유역 운봉댐 수몰지구 내 석호왕팔발자 유적에서 확인되어 이들 지역과 직간접적인 교역을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 직접교역, 중계교역, 금소재를 다루는 공방 및 공인



김포 운양동 2-9지점 1호 분구묘



김포 운양동 1-11지점 12호 분구묘

2. 근거리 교역

당시의 토기와 철기들은 어디에서 생산되었을까?

인천지역에서 철기생산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조사는 아직 확인된 예가 없다. 다만 인천 연희동 유적에서 철정이 확인되어 철소재를 이용하여 간단한 도구는 제작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토기와 기와의 생산과 관련된 유적은 인천 불로동 유적으로 토기와 기와를 생산하였던 가마가 확인되었다.

가마의 규모는 길이 9m, 너비는 1.8m이며 아궁이, 연소실, 소성실로 구성되어 있다. 소성실의 경사도는 약 17도로 완만하게 올라가며 지붕부가 결실되어 그 높이는 확인할 수 있다.

* 가마가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 동일 생산품



인천 불로동 토기가마

VI. 맺음말

인천지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은 주거지, 패총, 수혈, 구상유구, 분구묘, 토광묘, 옹관묘 등이 있다. 주거지는 대부분 결실되어 있으며 화재주거지가 아닌 관계로 생활당시의 모습을 알려줄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으나 인천 중산동 주거지는 다수의 유물들이 사용된 위치에 그대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통해 당시 생활상을 다소나마 살펴 볼 수 있었다. 분구묘는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위치한 매장시설의 한 종류로 후에 영산강의 대형분구묘로 변화하는 형태이다. 이들 주거지와 분묘에서 출토된 철기유물 중 철서는 예전에 선형철부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낙지가래의 용도로 보는 연구가 있어 서해안의 지역적인 특성 맞춰 도구가 제작되고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수전, 철경동축, 낙랑토기의 출토예를 통해 인천지역에서 해로를 통한 교역이 고대부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제1회 고고학 아카데미

고고유적으로 본 인천의 문화 3

유적으로 본 고려 · 조선시대의 인천 – 인천(강화)의 국방유적

박경우(한강문화재연구원)

유적으로 본 고려·조선시대의 인천

인천(강화)의 국방유적

한강문화재연구원

박경우

1. 인천지역의 발굴조사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은 8구(중구, 동구, 남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2군(강화군, 옹진군)과 3개의 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의 면적은 1,047km², 인구는 2,996,694명(2016년 8월말)이다.

서쪽으로 서해와 마주하고 있으며, 해안 매립지가 널리 분포되어 있다. 잔구형산맥이 해안까지 발달해 있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300m 내외의 잔구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진 반도형 지괴가 시가지를 이루고 있다. 부평구는 원적산, 광학산(201m), 거마산(205m)을 경계로 인천 도심과 시가지가 분리되고, 연수구는 문학산(213m)을 경계로 인천 도심과 시가지가 구분되며, 계양구는 계양산(395m), 천마산(285m)을 경계로 인천 도심과 별개의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14년까지 114건의 인천지역 문화재발굴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중 국방관련 유적은 17건으로 보고서가 발간된 발굴조사 중 약 15%에 해당한다.

번호	발굴허가	유적명
1	20140039	인천 영종도 T1-T2 연결도로 부지 내 유적
2	20140038	인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우회도로)부지 내 유적
3	20130348	인천 섬업별 인근해역 수중유적
4	20130175	강화 신정리 572-29번지 단독주택 부지내 유적
5	20130119	인천 서구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조성사업
6	20130093	강화군청 별관 사업부지 내 유적
7	20120518	인천 남동구 매소홀로(호구포로~남동경기장) 도로개설
8	20120465	강화군청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
9	20120416	인천 강화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차)
10	20120409	인천 서창2지구 주변도로(대3-112호선)구간
11	20120295	강화 선원사지(사적 제259호) 남서측 주변지역
12	20120095	인천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13	2011044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검암IC 건설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14	20110393	인천 중구 중앙동 근린생활시설 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15	20110271	인천 강화 국화리 463-1, 3번지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16	20110164	인천광역시 강화군 연리 일원 삼동암천 기본계획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지 문화재 표본시굴조사
17	20101000	강화 덕산봉수 유적

18	20100540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북장대지 유적
19	20100521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A지점 유적
20	20100136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부지
21	20100073	인천 계양구 굴현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22	20091103	인천 강화군 강화여고 기숙사 건립부지 내 유적
23	20090538	강화 정족진지(추가부지)
24	20090392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25	20090325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J지점 유적
26	20090277	인천 계양산성(4차발굴)
27	20090217	인천 서구 경서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28	20080852	강화 고려궁지 발굴조사
29	20080772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남장대지
30	20080770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서문
31	20080680	강화군 보훈회관 재건립 부지내 유적
32	20080549	창리-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 강화중성 유적
33	20080418	강화 화도면 홍왕리 향토유적 제17호 홍익한 택지
34	20080415	강화 정족진지
35	20080403	인화~강화 도로건설공사 구간내 I지점 유적
36	20080346	강화 계룡돈대 정비사업 구간내 유적
37	20080243	인천 영종도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건설공사(3구간) 부지내 유적
38	20070770	인천 강화 월곶진지
39	20070693	인천 강화 교동 2-1지구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유적
40	20070480	인천 문학경기장 내 철토잔여지 내 유적
41	20070453	강화향교 복원부지 내 유적
42	20070445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내(2구역) 유적
43	20070444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내(1구역) 유적
44	20060903	강화 선두리 강화종합리조트 조성사업부지내 유적
45	20060725	강화 용흥궁주변 공원화사업부지 내 유적
46	20060511	강화역사박물관 부지내 유적
47	20060504	인천 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부지내 유적
48	20060183	인천 성골라라수녀원 건립부지내 유적
49	20060145	인천 원당지구 3구역내 유적
50	20060122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 공사구간내 유적
51	20060072	강화 통제영학당지 및 진해루지 발굴조사
52	20050961	인천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건설부지내 유적
53	20050838	강화산성 남문지 주변 인도개설구간내 유적
54	20050826	강화 부근리 320-1번지
55	20050742	강화 통제영학당지
56	20050694	인천 원당-불로지구간 도로개설부지내 유적
57	20050599	인천 운서동 삼목도 신석기유적(2차)
58	20050482	강화 전등사 내 취향당지 발굴
59	20050474	강화 초지리 근린생활시설부지내 유적
60	20050337	인천 논현2택지
61	20040895	인천 강화창후리 유스호스텔부지
62	20040882	인천 운서동 삼목도 신석기유적
63	20040840	인천 계양산성 2차
64	20040812	강화 교동 대룡리유적
65	20040548	인천 월미공원 조성부지내 문화유적
66	20040505	강화 군내도로 확포장공사구간 유적

67	20040496	강화지석묘
68	20040367	강화 고려 왕릉(가릉, 곤릉)
69	20040281	인천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적
70	20040264	인천 을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내 유적
71	20040197	인천 영종도 북측유수지-을왕리해수욕장 도로구간 내 유적
72	20040167	인천 장도포대지
73	20040064	인천 운서토지구획정리지구내 유적 추가 발굴
74	20030463	강화 화도돈대
75	20030432	인천 동양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
76	20030424	강화 선두리 고려도기 가마터 발굴조사
77	20030415	강화 청소년 유스호스텔 신축부지내 유적(시굴)
78	20030348	인천 불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4구역) 유적
79	20030283	인천 불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3구역) 유적
80	20030274	인천 영흥 군도13호선 공사구간내 유적
81	20030257	인천 동양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유적(시굴)
82	20030189	중부서해안도서지역 발굴(웅진 연평도 까치산 패총1)
83	20030091	강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내 유적
84	20030063	인천 불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적(시굴)
85	20030041	인천국제공항 관제자유지역 단지조성부지내 유적
86	20020558	인천 계양산성
87	20020552	인천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유적(시굴)
88	20020400	인천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적
89	20020373	인천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4구역내 유적
90	20020244	인천 검단2지구 2지역내 유적
91	20020234	인천 용유도 북측 우회도로 건설지역내 유적
92	20020212	인천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유적
93	20020033	인천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1·2구역) 유적
94	20020022	강화도 화도돈대
95	20010319	강화 고려왕릉(석릉) 기저부 및 주변 유적
96	20010287	강화도 돈대(3차)
97	20010140	강화 조선궁전지(4차)
98	20010035	인천 당하(원당,불로,마전)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유적
99	20000242	강화도 돈대(용두돈 포대)
100	20000208	강화 선원사지(4차)
101	20000153	강화 하도리 고인돌
102	20000118	강화산성 보호구역 배수로 공사구간내 유적(시굴)
103	20000047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 신축부지내 유적 시굴
104	19990306	강화도 오상리 고인돌군
105	19990263	강화도 초루돈대
106	19990100	인천 지산리 선원사지(3차)
107	19990009	인천 운서동 신공항고속도로 건설지역내 유적
108	19980147	인천 지방법원 청사신축부지내 유적
109	19980088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건설구간내 유적
110	19980085	강화 지산리 선원사지(2차)
111	19970201	인천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 건립부지내 유적
112	19970199	강화 관청리 조선궁전지(외규장각지등)
113	19960124	강화 관청리 조선궁지(외규장각지 등)
114	19960121	강화 지산리 선원사지

2. 인천(강화)의 군사적 사건

인천지역 특히 강화도는 고려~조선시대에 국방요충지로서 우리나라에서 확인될 수 있는 모든 방어시설이 밀집되어 입지하고 있다. 강화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고려시대 몽골침입 때이다.

1231년 몽골의 1차침입을 당한 후, 다루가치를 통한 내정간섭이 심해지고 과도한 공물요구가 이어지게 된다. 이에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최씨정권은 몽골군과 싸울 것을 결심하고 강화천도를 단행하였다. 새로운 수도로 선정된 강화는 조석 간의 차가 크고 조류가 빨라 공격이 쉽지 않은 곳인 반면, 수도인 개경과 가깝고 지방과의 연결 혹은 조운(漕運) 등이 매우 편리한 곳이었다. 이 시기 강화도에 내성·외성·중성 및 연안의 제방(堤防) 등을 축조하거나 기존에 있던 삼랑성 등을 보수하였다. 현재의 강화읍 일대에 축성되어 있는 내성은 1232년 당시 강화천도와 함께 쌓은 것으로 보이며, 지금의 남산과 대문현(大門峴)을 걸쳐 동남쪽일대를 둘러싼 외성은 천도 이듬해 착공되어 1237년에 증축된다.

1259년 고려의 태자 전(僖: 뒤의 원종)이 부왕을 대신해 몽고에 입조(入朝)함으로써 30년간 계속된 몽고와의 전쟁은 종식되었으나 실권을 잡은 무인들은 출륙환도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원종은 몽고에 접근하여 무인들의 세력을 억제하고 출륙환도를 단행함으로써 왕정복구(王政復舊)를 확립하려고 노력하였고, 몽고는 배후에서 고려 왕실을 조종해 반몽고세력을 배제하려고 획책하였다. 1270년 임유무(林惟茂)가 살해되어 무인정권이 종식되자 원종은 몽고의 지시에 따라 출륙환도를 단행하였다.

조선 태종 때 강화는 도호부로 승격되었고, 조운의 활성화와 함께 한강의 입구로서 진이 설치되고 김포, 양화, 통진, 교동 등지의 진을 통괄하게 되었다. 강화부사는 경기 병마절도사가 겸임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강화도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우성전, 김천일 등이 의병장으로 활동하며 권을 장군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강화도는 유배지로도 유명했는데, 연산군, 광해군 등이 이곳으로 유배를 왔었다.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이곳으로 피난하였고, 병자호란 때는 봉림대군 등 왕족들을 피신시켰다. 청에 의해 강화도가 함락되고 왕자 등이 인질로 잡히자 남한산성에 있던 인조도 항복하게 된다. 효종때는 북벌을 계획하면서 해안에 월곶진, 제물진, 광성보 등 진과 보를 설치하였고 성곽을 수리했다. 숙종 때는 강화도 해안 돌출부에 53개 돈대를 설치하였다.

조선 후기 병인박해를 구실로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 온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1866년 9월 18일 리델 신부와 한국인 신도 3명의 안내로 로즈 제독이 인솔한 프랑스 군함 3척은 인천 앞바다를 거쳐 양화진(楊花津)을 통과하여,

서울 근교 서강(西江)에까지 이르렀다. 프랑스 함대는 9월 25일 강류(江流)·연변만 측량하고 중국으로 퇴거하였다. 그해 10월14일 로즈 제독은 순양전함(巡洋戰艦) 게리에르를 비롯, 모두 함대 7척과 600명의 해병대와 함께 부평부(富平府) 물치도(勿淄島: 芍藥島)에 나타났다. 10월 14일 이 중 4척 함정과 해병대가 강화부(江華府) 갑곶진(甲串津) 진해문(鎭海門) 부근의 고지를 점거하였다. 프랑스군은 한강수로의 봉쇄를 선언하고, 16일 전군이 강화성을 공격하여 교전 끝에 이를 점령하고, 무기·서적·양식 등을 약탈하였다.

조선은 이경하(李景夏)·신헌(申櫟: 申觀浩)·이기조(李基祖)·이윅희·한성근(韓聖根)·양헌수(梁憲洙) 등 무장들에게 서울을 위시하여 양화진·통진(通津)·문수산성(文殊山城)·정족산성(鼎足山城) 등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일 프랑스측에게 격문(檄文)을 보내 선교사 처단의 합법성과 프랑스함대의 불법 침범을 들어 퇴거할 것을 통고하였다. 로즈는 회답을 통하여 선교사 학살을 극구 비난하고, 그 책임자를 엄벌할 것과, 전권대신을 파견하여 자기와 조약의 초안을 작성하라고 맞섰다. 10월 26일 프랑스군 약 120명은 문수산성을 정찰하려다 미리 잠복, 대기중인 한성근의 소부대에게 27명이 사상되는 등 처음으로 막대한 인명손실을 입었다. 이로부터 민가·군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포격을 가했으며, 이러한 만행은 황해도 연안(延安)에까지 미쳤다. 11월 7일 올리비에 대령이 이끄는 프랑스 해병 160명은 정족산성을 공략하려다가 잠복하고 있던 500여명의 조선군 사수들에게 일제히 사격을 받아 큰 손실을 입고 간신히 갑곶으로 패주하였다. 정족산성(삼랑성) 전투의 참패로 프랑스군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철군하게 된다.

1871년에는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한 신미양요가 일어난다. 미국은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명분으로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Rodgers, J.)에게 해군함대를 동원, 조선 원정을 명하였다. 로저스는 조선측이 평화적 협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무력시위 및 군사작전으로 강제적으로 입약(立約)을 성취시키겠다는 포함 책략을 수립하고 인천 앞바다에 내침하였다. 로저스는 서울로 가기 위한 수로를 탐색하기 위해 강화해협을 탐측하겠다고 조선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하였다. 그리고 6월 1일 강화해협의 탐측 항행을 강행하였다. 함대가 손돌목[孫覿項]에 이르자 연안 강화포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조·미간에 최초로 군사적 충돌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손돌목 포격사건’이라 한다.

미국 대표는 조선 대표를 파견해서 협상할 것, 포격사건에 대한 사죄 및 손해배상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조선정부는 협상 및 사죄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평화적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6월 10일 초지진(草芝鎭) 상륙작전을 단행하였다. 미군은 함상 함포사격으로 초지진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점거하였다. 미군은 6

월 11일에는 덕진진(德津鎭)을 무혈 점거하였다. 마지막으로 광성보(廣城堡) 작전을 수행하였다. 광성보에는 진무중군 어재연(魚在淵)이 이끄는 조선 수비병 600여 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군은 수륙 양면포격을 한 시간 벌인 끝에 광성보를 함락하였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이었고, 조선군은 전사자 350명, 부상자 20명이었다. 미군은 광성보를 점거하고 수자기(帥字旗)를 탈환하고 성조기를 게양, 전승을 자축하였다. 하지만 구체적 점령계획이 있지 않았던 미국은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쇄국양이정책(鎖國攘夷政策)에 부닥쳐 조선 개항을 단념하고 7월 3일 함대를 철수하였다. 조선측은 조·미전쟁에서 완전 패전하였지만, 미군 함대의 철수를 곧 패퇴로 간주하였다.

1875년에는 일본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하여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일본은 영국에서 수입한 근대식 군함인 운요호를 부산에 침투시켰다. 이에 부산군도 현석운(玄昔運)이 부산의 왜관(倭館 일본의 상관이 있고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가 군함을 침투시킨 이유를 묻자 운요호 함장은 ‘조선과의 수교 교섭이 지연되는 이유를 일본의 이사관에게 물으러 왔다’고 거짓으로 설명하고, 오히려 현석운을 군함에 승선시켜 함포사격 훈련을 구경시키는 등 군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그들은 조선 해안을 탐측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실을 대었다. 운요호는 동해안을 순항하고 다시 남해안을 거쳐 서해안을 거슬러 1875년 9월 20일 강화도 앞 난지도에 도착하였다. 운요호의 함장 이노우에는 일본군 수십명을 데리고 담수 보급의 명목으로 작은 보트를 타고 강화도 초지진으로 접근하였다. 이때 해안 경비를 서고 있던 조선 수병은 예고도 없이 침투하는 일본군 보트에 포격을 가하였고, 이에 일본군은 모함으로 되돌아가, 함포로서 조선에 보복 포격을 가하였다. 그리고 영종진(永宗鎭 오늘날의 영종도)에 상륙하여 조선수군과 격전을 벌여, 근대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이 조선군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무기도 다량 탈취하였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방화, 살육을 하고 퇴각하였다. 그 후 일본은 다시 강화도 앞바다에 무력시위를 하며 나타나, 이 사건의 책임을 조선에 물으며 수교통상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인 1876년 2월 26일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을 체결하였고, 조선은 일본에 개항을 하게 되었다.

3. 인천(강화)의 군사유적



그림 1 강화도 내 산성 위치도

1) 강화산성

강화산성은 사적 제132호로 강화읍과 내가면·하점면 일대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성문 4개와 첨화루(瞻華樓)·안파루(晏波樓)·진송루(鎭松樓)의 문루, 암문(暗門)·수문(水門)·장대(將臺) 등의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려 말 몽고군의 침입으로 백성과 국토가 유린되자 1232년(고종 19) 6월 대몽항쟁의 기치를 들고 강화천도를 위하여 최우(崔瑀)가 궁궐을 짓고 도성(都城)을 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왕궁과 도성시설이 완비된 것은 아니고 1234년 1월부터



그림 2 강화산성 위치도



그림 3 강화산성 암문



그림 4 성 기초부



그림 5 복원 성문



그림 6 외성 전축성



그림 7 외성 석성



그림 8 외성 미복원 구간 1



그림 9 외성 미복원 구간 1

도성과 궁궐 및 각 관청을 송도(松都)의 것과 비슷하게 만든 것이다.

성은 내성·중성·외성이 있었는데, 내성은 지금의 강화성이다. 중성은 내성을 지키기 위하여 1250년에 축조한 주위 약 9km에 걸쳐 있는 토성으로서 선원면의 토성지로 지정되고 있다. 중성에는 8개의 성문이 있는데 모두 송도의 이름을 본뜬 것이다. 즉, 동에 선인문(宣仁門), 서에 선기문(宣祺門), 남에 태안문(泰安門), 북에 북창문(北昌門), 동남에 장패문(長霸門), 서남에 광덕문(光德門), 서북에 선의문(宣義門), 동북에 창희문(彰熙門)이 그것이다. 외성은 중성을 수비하기 위하여 1233년부터 축조하기 시작하여 1235년 12월에 각 주현(州縣)의 일품군(一品軍)을 징발하여 강화의 동쪽 해협을 따라 3만 7,070척에 이르는 대대적인 축성공사를 실시하였다.(적북돈대~초지진) 이 외성도 토성으로 되었으며, 몽고군이 바다를 건너 공격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방위시설이었다. 그러나 1259년 몽고와 강화하는 조건으로 몽고가 주자(周者)와 도고(陶高) 등을 보내와 내성을 헐게 하고 외성까지도 모두 헐게 하였다.

조선 초기에 다시 축성하면서 고려의 내성이던 강화성을 축소시켰다. 그러나 비창시에 국왕의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해 광해군 10년(1618) 외성을 보수하여 사용하였다. 숙종때 병자호란기(1636)에 허물어진 외성을 돌을 이용하여 다시 쌓았고 돈대(墩臺)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영조때 강화유수 김시혁(金始嬭)이 비가 오면 성의 흙이 흘러내려 나라에 건의하여 영조 19년(1743)에서 이듬해에 걸쳐 벽돌을 이용하여 다시 쌓았다고 한다. 2001년 동양고고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오두돈 주변의 전축성 구간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에 의하면, 뿔층을 기초로 머리돌을 올리고 그 위에 대형석재로 석벽의 중심을 삼고 그 위에 머리돌을 올리고 다시 전돌을 여러 단 쌓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637년(인조 15) 병자호란 때 청군(淸軍)에 의해 다시 파괴되었고, 1677년(숙종 3) 강화유수(江華留守) 허질(許秩)이 대폭 개축하여 고려시대의 내성 규모로 넓혔다. 1709년 강화유수 박권(朴權)이 중수하였고,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보수공사가 있었다. 이 때 체성(體城)은 돌로 견고하게 쌓았고 여장(女牆)도 설치하였다. 성안에는 남장대(南將臺)·북장대(北將臺)·서장대(西將臺)가 있고 수문이 두 개 있다. 1966년 서문이 해체, 복원되었고, 1974년 남문 문루가 복원되었으며 이듬해에 성곽이 보수되었고, 1977년 북문이 복원되었다.

2) 삼랑성(정족산성)

정족산성이라고도 하며 단군의 세 아들이 성을 쌓았다는 전설이 있어 삼랑성이라 부른다. 이 성이 만들어진 연대는 정확하지 않으나, 고려가 1259년 삼랑성 안에 궁

궐을 만들었다고 하니 그 전에 이미 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곽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면 보은의 삼년산성이나 경주의 명활산성처럼 삼국시대 성의 구조를 찾을 수 있으므로,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성으로 추측된다. 고려 때 보수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영조 15년(1739)에 성을 다시 쌓으면서 남문에 문루를 만들고 ‘종해루’라고 하였다. 조선 현종 1년(1660) 마니산의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 왕조실록』을 성 안에 있는 정족산사고로 옮기고,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는 선원보각을 함께 지었다. 그러나 지금은 둘 다 없어지고 전등사만 남아있다. 이곳은 고종 3년(1866)의 병인양요 때 동문과 남문으로 공격을 해오던 160여 명의 프랑스군을 무찌른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3) 돈대(墩臺), 포대

돈대는 주변 관측이 용이하도록 평지보다 높은 평평한 땅에 설치한 소규모 군사 기지로 봉화가 딸려 있는 곳도 있다. 돈대의 형태는 원형과 방형 2가지가 있으며, 내부에는 2~3단의 마루를 만들고 외부로 향한 벽면에 각 층마다 작은 안혈을 내어 대포·총·화살을 쏠 수 있도록 하였다. 돈대 설치의 기록은 조선시대 문헌에서 나타난다. 1679년(숙종 5) 병조판서 김석위(金錫胃)의 건의에 따라 강화에 53개소의 돈대가 설치되었는데, <여지도서 輿地圖書>에 그 명칭과 위치가 그려져 있다.

포대는 포루(砲樓)라고도 한다. 비행기가 출현하기 이전의 시대에 적의 군함이나 부

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해안요새나 주요 도시의 성곽 등에 영구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야전에서 요지·요부의 방호를 위해서 임시적으로 구축되는 것도 있었다. 포대에는 포안(砲眼)을 설치하여 필요시에만 포구를 내밀어 사격할 수 있도록 만든 것, 높게 쌓아 올려서 그 위에 노출된 포를 설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또는 포탑을 설치해서 그 안에 포를 장치해 놓은 것 등이 있다.



그림 14 월곶돈대



그림 15 광성돈대



그림 16 석우돈대



그림 17 병현곶돈대



그림 18 송강돈대



그림 19 갑곶돈대



그림 20 남장포대



그림 21 광성포대



그림 22 사망금포대지



그림 23 진남포대지



그림 25 인천 지역 국방유적 위치도 2

제1회 고고학 아카데미

인천지역 고고유적의 발굴성과와 특징

박성우(인하대학교 박물관)

인천지역 고고유적의 발굴성과와 특징

박성우(인하대학교 박물관)

1. 머리말

인천지역은¹⁾ 천혜의 식량자원인 바다와 갯벌을 배경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기 좋은 자연·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 결과 인천지역 일대에는 많은 문화유적이 남아 있으나 개항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다수의 문화재가 훼손되었으며 발견되는 문화재들도 파괴된 상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인천지역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행히 1990년대 이후 인천지역의 활발한 개발에 따라 문화재 발굴이 본격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 크고 작은 발굴 성과들이 드러나면서 인천지역 일대의 문화상을 새로이 재조명해 볼 수 있는 학술적 자료들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발굴 성과에 따라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거의 모든 시기의 문화유적이 확인되었다.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발굴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구석기시대에서 역사시대에 이르는 인천지역 발굴조사의 성과 및 특징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인천지역 고고유적 현황

1. 구석기시대

인천지역에서는 90년대 이후 지표조사등을 통해 구석기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유적이 확인된 바는 없었다.²⁾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인천지역에서도 구석기 문화가 존재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유적과 유물들이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2002~2006년에 걸쳐 실시한 인천 원당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3·4구역 발굴조사에서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었다.³⁾ 또한

1) 본고에서 지칭하는 인천지역은 강화도 및 도서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상의 인천지역을 의미한다.

2)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인천국제공항문화유적2차발굴용역최종보고서』, 1998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영종도 송산선사유적』, 1996

이선근, 『강화도학술조사보고서』5, 동국대강화도학술조사단, 1977

선문대발굴조사단, 『강화내가면오상리고인돌무덤발굴조사현장설명회 자료』, 2000

인하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 제14책 『인천 문학동 선사유적』, 인하대학교박물관, 기전문화재연구원 2000

3)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인천 원당동유적(II)』, 2008.

2003~2004년 인천불노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⁴⁾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도 구석기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몸돌, 주먹도끼, 새기개 등의 석기들이 수습되었다.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⁵⁾에서도 구석기지층인 4기 갯신세 퇴적층이 확인되었고, 석기가 지표에서 수습 되어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강화도에서는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굴조사된 사례는 없지만 하점면 장정리와 내가면 오상리에서 몇 점의 뿔석기가 수습된 바 있다. 또한, 2004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실시한 창후리고분군 시굴조사에서 뿔석기가 수습된 바 있다.⁶⁾

2.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유적은 인천및 강화도, 영종도, 교동도, 연평도등 대부분의 도서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로 패총과 지표에서 유물이 수습되어 존재 가능성이 제기 되었으나 최근에는 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등 신석기시대 유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유적은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당시 신석기인들의 해양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패총

인천지역의 패총유적은 웅진군을 포함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서해도서지역의 패총유적은 1970년대부터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백령도 말등패총의 경우 1973년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2000년 한양대학교박물관과 2001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재확인된 유적이다. 백령도 용기패총의 경우도 1981년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학술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2000년 이후 한양대학교박물관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 의해 재확인된 유적이다. 이들 유적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들이 수습되어 신석기시대 유적임을 확인하였다.⁷⁾

연평도에서도 다수의 패총 유적이 확인되었는데 대연평도패총, 까치산패총, 당도패총, 모이도 패총등이 대표적이다. 대연평도패총은 모두 7개소의 유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00년대 이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등이 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으로 패각층에서 빗살무늬토기편등이 수습되었다. 이외에도 웅진군 시도, 신도, 자월도, 선재도, 덕적도, 굴업도, 영흥도등의 도서지역에

4)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인천 불로동유적」, 2007.

5) 인하대학교박물관, 「인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시굴조사 보고서」, 2005.

6)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강화 창후리 청소년유스호스텔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8

7) 인하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웅진군』, 2006. pp.148-150

서 신석기시대 패총이 확인되었다.⁸⁾

또한 영종도 을왕동패총의 경우 2004년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동일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 4기도 함께 확인되어 인천연안 일대의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거주했음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덕교동패총은 2000년 한양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확인된 유적으로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되었다. 덕교동패총도 인근에서 유물산포지가 확인되어 인근에 주거지가 존재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 외에 무의도에서도 3개소의 신석기시대 패총이 한양대학교박물관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무의도 패총에서는 다수의 빗살무늬토기편과 석촉등이 수습되었다⁹⁾

2) 주거유적

(1) 영종도 운서동 유적¹⁰⁾

영종도 운서동 유적은 2007-2008년에 걸쳐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지에 대해 중앙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이다. 운서동 유적은 I, II, III, IV등 네 개의 지점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 중 운서동 I-1지점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8기, 패총 1기, 야외노지 5기, 수혈유구등이 확인되었으며 I-2지점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58기와 야외노지 7기, 수혈유구등이 조사되었다. 운서동 II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6기와 수혈유구 4기, 조선시대 토광묘 1기가 조사되었다. 운서동 III 지점에서도 신석기시대 주거지 2기와 야외노지 2기가 확인되었으며, IV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토광묘 26기와 수혈유구 3기, 석렬유구 1기, 주혈군 2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2) 영종도 중산동 유적¹¹⁾

영종도 중산동 유적은 2007-2008년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및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 한강문화재연구원이 발굴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이다.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된 21, 23지점은 해발 20m내외의 낮은 구릉지대로 신석기시대 주거지 35기, 수혈

8) 인하대학교박물관,『문화유적분포지도: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서구·옹진군』, 2006.

9) 인하대학교박물관,『문화유적분포지도: 인천광역시 남구·남동구·동구·중구·연수구』, 2005.

10) 중앙문화재연구원,『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내(1구역) 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2009.1.

한강문화재연구원,『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문화재 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22.23지점』, 2008.10.

중앙문화재연구원,『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내(3구역) 유적 문화재발굴조사 약보고서』, 2009. 6.

11) 한강문화재연구원,『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문화재 발굴조사 3차 지도위원회:22.23지점』, 2008.10.

유구 421기, 야외노지 26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백제시대 주거지 1기, 조선시대 분묘 32기등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원형 13기, 방형 22기가 확인되어 방형이 다소 높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주거지의 형태는 노지를 중심으로 4주식의 주혈 배치를 보이는 형식과 벽면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주혈이 배치된 형식이 있다.

(3) 영종도 운북동 유적¹²⁾

영종도 운북동 유적은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부지에 대한 구제발굴의 일환으로 2008-2010년 한강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운북동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주거지, 수혈, 원삼국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주거지, 조선시대 주거지, 분묘 등 다량의 유구들이 확인되었다. 신석기시대 주거지 및 수혈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 석부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4) 인천 을왕동 유적¹³⁾

인천 을왕동 유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의뢰에 의해 북측유수지에서 을왕리 해수욕장간 도로부지에 대해 중앙문화재연구원이 2004년 발굴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패총을 비롯하여 주거지 4기, 수혈유구 2기 등 총 1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을왕동 유적은 해발 50m 내외의 구릉 사면에 위치하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과 장방형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돌을 사용한 위석식 노지가 확인되었으며 다량의 빗살무늬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AMS와 고지자기 연대 측정결과 대략 B.C. 3000 전후하여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인천 동양동 유적¹⁴⁾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서 동양동 신석기 유적은 2003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의 지표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어 같은 해 7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발굴조사된 유적이다. 조사결과, 신석기시대 주거지 1기가 일부 유실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대부분 삭평된 상태로 일부만이 확인되었으며 잔존크기 33cmX34cm 로 빗살무늬토기편과 석부가 수습되었다.

12) 한강문화재연구원,『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1차 지도위원회』, 2008. 12.

한강문화재연구원,『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4차 지도위원회』, 2009. 12.

13) 중앙문화재연구원,『인천을왕동유적』, 발굴조사보고 제85책,2006.

14)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인천 동양동 유적』,2007

3. 청동기시대

인천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지석묘와 주거지로 크게 구분된다. 이 가운데 지석묘는 최근 주거지가 조사되기 이전에 인천의 청동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다. 인천의 지석묘는 강화도의 경우 고려산을 중심으로 다수의 지석묘들이 존재한다. 인천 내륙지역에서는 학익동, 주안동, 문학동 등 문학산 주변지역과 계양산 북쪽에 자리한 서구 대곡동과 검단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주거유적은 인천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인천 남부지역에서는 지석묘, 청동기시대 주거지 및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1) 지석묘 유적

청동기시대 지석묘 유적들 중 강화도지역에는 약 160여기 정도의 지석묘¹⁵⁾가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 이 중 삼거리 지석묘군에서 탁자식 지석묘 5기와 주거지 1기가 조사되었으며 각형토기와, 유경식석검, 환상석기가 출토된 바 있다¹⁶⁾, 오상리 지석묘군에서는 북방식 지석묘 10기가 발굴조사 되었고 각형토기와 유경식 석촉이 출토되었다.¹⁷⁾ 강화도 지역의 지석묘는 유적의 분포 경향이나 지석묘 주변 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검토해 볼 때 대동강유역의 각형토기문화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¹⁸⁾

청동기시대 지석묘는 인천 내륙지역에서도 다수가 확인되었다. 문학산 일대의 지석묘는 학익동에 7~8기, 주안동에 2기, 문학동에 1기 등 12기 정도가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그러나 현재 학익동 지석묘 2기와 주안동 지석묘 1기, 문학동 지석묘 1기 등 4기만 그 존재가 확인되며²⁰⁾ 그나마 원위치에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문학산 일대의 지석묘의 형태나 입지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으나 대체로 북방식(탁자식)이 우세하며, 주로 문학산 북쪽에 펼쳐진 낮은 구릉위에 자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²¹⁾

인천지역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지석묘군은 대곡동 지석묘군으로 그동안 여러

15) 현재 강화지역의 지석묘는 157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인천광역시, 2002,『강화의 문화유적』)

16) 金載元·尹武炳, 1967, 「三巨里遺蹟」 『韓國支石墓研究』.

17) 鮮文大學校 考古研究所·江華郡, 2002, 『江華 鰲上里 支石墓:發掘 및 復元 報告書』.

18) 강동석, 2007, 「인천연안의 지석묘문화」, 『인천연안의 고고학』, 서울경기고고학회.

19) 윤용구·강동석, 앞의 글.

20) 문학산일대의 지석묘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에서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金元龍,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 第三冊, 1953.

李慶成, 「仁川의 先史遺蹟遺物 調査概要」, 『梨大史苑』第1輯, 1959.

仁川市, 『仁川郷土史資料』, 1956.

岡田貢, 『仁川近郊の史蹟と史話』 『朝鮮研究』, 1929.

21) 인하대학교박물관, 『인천 원당동유적:원당~볼로지 구간 도로개설공사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2009.

차례 조사를 통해 알려진 유적이다.²²⁾ 2005년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의뢰를 받아 인하대학교박물관이 대곡동 산 123-1번지 일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결과 재확인된 유적이다.²³⁾ 대곡동 지석묘군은 인천광역시와 김포시 경계에 위치한 가현산 일대에 분포한다. 가현산의 입지는 주봉과 능선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골짜기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동쪽 평야로 연결되고 있어 소규모 단위 사람들의 생활에 매우 적합한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2005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의 대곡동 지석묘군에 대한 정밀 조사결과 70여기 분량 정도의 덮개돌 및 궂돌들이 확인되었는데 지석묘의 형식은 탁자식과 개석식이 혼재하고 있으며 여전히 능선에 매몰된 채 일부만 드러나 있을 뿐 전모를 알 수 없는 지석묘가 다수이다. 덮개돌의 형태는 몇가지 다른 형태들이 있는데 말각장방형과 부정형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덮개돌이 보이는 것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판석을 사용한 결과로 가장자리를 손질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상태의 판석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보인다. 대곡동 지석묘군에서 확인된 유물로는 주상편인석부, 무문토기동체부편, 반월형석도등이 있다.²⁴⁾

2) 주거유적

지석묘와 더불어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주거지 및 생활 유적 등이 발굴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천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들 중 대표적인 유적들은 다음과 같다.

(1) 동양동 유적²⁵⁾

동양동 유적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2003~2004년 발굴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이다. 유적은 해발 15~17m의 나지막한 구릉성 대지에 위치하며 북서쪽으로는 서부간선수로가 지나고 있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3기가 확인되었다.

1호 주거지는 세장방형으로 규모는 길이 1170cm, 너비 630cm, 깊이 45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N-11°-W)향에 가깝다. 출토유물은 다량의 이층구연 토기, 석촉, 석부, 찰절석기, 석창, 등이 수습되었다. 이와 함께 다량의 탄화된 도토리

2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1977

任孝幸, 『京畿道 金浦半島의 考古學 調査研究』 『年報』 2, 서울대학교박물관, 1990. 1-16쪽.

編纂委員會, 『金浦郡誌』, 1992. 1303~1308쪽.

한양대학교박물관, 『김포시양대학교박물관, 『김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290~292쪽.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290~292쪽.

京畿道博物館, 『도서해안지역 종합학술조사』, 2002. 71~84쪽.

인천광역시립박물관, 『仁川北部 綜合學術調査』, 2004. 57~68쪽.

23) 인하대학교박물관, 『대곡동 지석묘: 인천 대곡동 지석묘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05.

24) 인하대학교박물관, 『대곡동 지석묘: 인천 대곡동 지석묘 정밀지표조사보고서』, 2005.

25) 韓國文化財保護財團, 『仁川 東陽洞 遺蹟』, 2007.

국물들이 확인되었으나 주거지 내부에서 갈돌이나 노지가 확인되지 않았다.

2호 주거지는 비교적 소형으로 규모는 길이 410cm, 너비 384cm, 깊이 30cm, 장축방향은 남-북(N-12°-E)향에 가깝다. 출토유물은 1호 주거지와 유사한 이종구연토기, 숫돌(지석), 석제품, 기타 석편들이 다량 출토되었다. 주거지의 규모나 토기의 출토량에 비해 석기제작에 관련된 유물들이 다량 출토된 점으로 보아 석기제작 관련 공방지일 가능성이 많다.

3호 주거지는 인공림을 조성하면서 상당부분 파괴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이미 심하게 삭평이 이루어져 명확한 유구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다. 유물의 출토범위, 잔존주혈, 목탄범위 등을 통해 잔존 유구면을 추정해 볼 때 대체적으로 2호 주거지와 같은 평면 방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불로동 유적²⁶⁾

불로동 유적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2003년 발굴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이다. 불로동 유적은 황화산에서 남서쪽으로 해발 20m 내외의 구릉 북사면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북쪽 부분은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며 나머지 부분 역시 후대 교란되어 잔존부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출토유물은 주거지 바닥면 상부 퇴적층에서 무문토기편들과 마제석촉이 수습되었다.

(3) 원당동 4구역 유적²⁷⁾

원당동 4구역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2002~2005년 발굴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이다. 원당동 4구역은 모두 세 곳(가,나,라)의 발굴지점이 있는데 ‘가’지점은 조사지역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해발 30m 내외의 낮은 구릉부에 해당된다. ‘가’지점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9기와 수혈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이들 중 7기의 주거지와 2기의 수혈유구에서 무문토기, 반월형 석도, 석촉, 석제방추차등 청동기시대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나’지점은 조사지역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며, 남동쪽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된다. 유적은 해발 30m정도의 구릉에 위치하며 구릉의 서쪽과 남쪽사면은 이미 삭평된 상태였다. ‘나’지점에서는 주거지 7기와 수혈유구 3기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유구에서 무문토기, 석촉, 석창, 반월형석도등이 수습되었다. ‘라’지점은 조사지역 구릉 남사면 하단에 단독으로 위치하는 장방형 수혈주거지이다. ‘라’지점에서는 주거지 5기가 확인되었으며 무문토기, 마제석기 등이 수습되었다.

26)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學術調查報告 第 193冊『仁川 不老洞 遺蹟』,2007.韓國文化財保護財團.

2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學術調查報告 第 201冊『仁川 元堂洞 遺蹟』,2008.韓國文化財保護財團.

(4) 원당동 유적²⁸⁾

원당동 유적은 인하대학교 박물관이 2003년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고인돌 1기가 확인되어 인접 능선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2005년부터 2007년 까지 모두 3차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세장방형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원당동 주거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만수산(해발 114.6m) 서쪽 능선의 끝 부분에 위치하며 자연 삭평으로 인하여 어깨선의 훼손이 심한 편이다. 잔존 크기는 길이 1160cm, 너비 400cm, 깊이 15cm로 장단비가 2.9:1의 세장방형이며 면적은 46.4㎡인 대형에 속한다. 주거지 바닥은 특별한 시설 없이 자연 풍화암반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내부시설로는 굴광형 노지 4기와 기둥구멍 8기, 저장공 1기가 확인되었다. 노지는 주거지의 중앙에 일렬로 설치되었으며 노지의 크기는 지름 62~65cm, 깊이 6~8cm크기의 원형이다. 노지의 내부에서는 소량의 목탄들이 확인되었으며 수습된 유물은 없다. 노지 1, 2, 3의 주변에서는 마제석촉과 방추차, 숫돌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노지 4의 주변에서는 갈돌, 반월형석도등이 출토되었다.

(5) 검단동 유적²⁹⁾

검단동 2지구 유적은 문화재보호재단이 2002~2003년 발굴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이다. 검단동 유적에서는 2기의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1호주거지는 조사지역 남서쪽 해발고도 34m 구릉 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주거지의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일치하며 동-서(N-75°-W) 방향에 가깝고 주거지의 잔존규모는 556×167×20cm 정도이다. 주거지 내에서 무문토기편, 마제석촉 3점, 지석 1점, 용도미상 석재 1점이 출토되었다. 2호주거지는 1호주거지 남동쪽 3m지점에 위치하며 주거지의 상부와 남벽 일부는 대부분 삭평되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원형노지 1개소가 확인되었고 무문토기편, 지석, 용도미상 석기등이 수습되었다.

(6) 문학동 유적³⁰⁾

문학동 유적은 인하대학교박물관과 기전문화재연구원이 2000년 공동으로 발굴조사한 인천문학동 선사유적³¹⁾과 지형상으로 연결되는 유적이다. 문학동 유적은 인

28) 인하대학교박물관, 『인천 원당동유적·원당-불로지구간 도로개설공사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09

2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 仁荷大學校博物館, 『仁川 黔丹土地區劃整理事業地區 文化遺蹟 調査報告書』, 2003.

30) 인하대학교박물관, 『문학경기장 절토잔여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8.

31) 인하대학교박물관, 『인천 문학동 선사유적』, 2000.

하대학교박물관이 2007년 7월에 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가 확인되었고 2008년 4월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 주거지 5기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주거지들은 7호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양호한 상태로서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들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들은 비교적 밀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중첩되지 않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마제석촉, 반월형석도, 석창, 솥돌, 석부, 무문토기 등 다량의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7) 영종도 증산동 유적³²⁾

인천 영종지구 증산동 유적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개발사업부지에 대한 구제발굴의 일환으로 중앙문화재연구원이 2007~2009년 발굴조사하여 확인된 유적이다. 증산동 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34기, 시대미상 야외노지 10기, 조선시대주거지 10기, 조선시대토광묘 38기, 수혈 및 기타유구 26기가 확인되었다. 이들 주거지에서는 석촉, 석도, 석검, 석창, 환상석부 등의 석기류와 홍도, 발형토기 등 다량의 토기들이 수습되었다. 유물상의 특색은 공렬토기 및 구순각목의 빈도수가 낮고,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인 유구석부와 일단병식석검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시기가 다소 늦은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

4. 역사시대

(1) 인천 운남동 유적

인천 운남동 유적(운남동 패총)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부지에 대한 구제발굴의 일환으로 2008~2009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에 의해 발굴조사된 유적이다³³⁾. 조사결과 운남동 유적에서는 원삼국~백제시대 패총, 주거지, 수혈유구, 옹관묘, 토광묘 등 다량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들 중 철기시대 주거지 6기가 확인되었는데 타날문토기, 대웅, 시루, 경질무문토기 등 다양한 종류의 토기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운남동 유적에서는 패총이 6개소 확인되었으며 A지구 패총 내에서는 2개 채분의 인골이 수습되어 형질인류학적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패총에서 출토된 철경동촉과 오수전등은 낙랑과 관련된 유물로서 인천연안지역과 낙랑과의 교류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중앙문화재연구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내(3구역) 유적 문화재발굴조사 약보고서』, 2009. 6.

33)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영종도의 고고학』, 인천학 학술대회 발표문요지, 2010

(2) 문학산성 주변유적

‘문학산성주변유적’은 2014년 8-9월에 걸쳐 한국고고인류연구소의 시굴조사에 의해 확인된 유적이다. 이 유적은 문학산 등산로에서 확인되었는데 동쪽 300m 지점에 문학산성이 위치해 있다. 이 시굴조사는 통일신라시대 경질완 연질완 및 격자문이 시문된 토기편이 수습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조사결과 건물지로 추정되는 석렬들과 기와편 토기편등이 수습되었으며 이들 기와편 2편에서는 ‘七月目官’, ‘于化〇’명문기와도 수습되었다.

발굴 보고자는 이 유적의 성격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첫번째는 문학산성으로 올라가는 서쪽 능선을 방어하는 망루의 가능성이다. 이 유적이 위치한 곳의 주변지형으로 보아 최적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출토 유물 가운데 생활용기인 소형 완의 집중 출토로 보았을 때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망루가 기와건물로 축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제의와 관련된 유구일 가능성으로, 산성과 관련된 안녕(安寧)을 기원하는 제의에 관한 기록이 문헌에 보이지만 구체적인 제사터의 위치나 제의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문헌에 대한 보완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³⁴⁾

(3)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유적

인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유적에서는 선사시대 유구 외에도 삼국시대 주거지 10기, 수혈 21기, 분구묘 14기, 목관묘 1기, 토광묘 2기 등의 역사시대 유구들이 확인되었으며, 소호, 환두도, 경질무문토기편, 타날문토기편, 철검 등 다수의 유물들이 수습되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횡혈식 석실분 2기와 고려시대 석곽묘 2기, 조선시대 분묘 17기 등도 확인되었다. 구월동 유적과 인접한 수산동 유적에서도 고려시대주거지 5기, 조선시대토광묘 56기,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2기, 주거지 2기 등 역사시대 유구와 유물들이 확인되었다.

(4) 문학구역도시개발사업부지내유적

‘문학구역도시개발사업부지내유적’에서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건물지 수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구역에서는 고려말~조선후기에 해당하는 자기편, 기와편과 함께 건물지 15기, 주거지 15기, 수혈유구 약 95기, 소성유구 12기, 구상유구 9기, 삼가마 1기, 우물 1기 등 총 146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 가운데는 청동기시대 및 통일신라시대의 유물도 있어 이 지역이 문학산 선사유적 및 인천도호부 등 역사유적과 관련이 있는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지는 ‘다-1·4’ 구역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동일지역에 누대에 걸쳐 반복적인

34) 『 문학산성 주변 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4,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 pp. 16-17.

건축으로 최초 시기의 건축구조물은 거의 파괴되어 최하단에 해당하는 축대나 건물기단부 일부만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또한 현대의 건축물과 중복된 곳이 많아 완전한 형태의 건물은 전무한 상태이다.

수혈주거지는 ‘다-1:3:4’ 구역에서 평면형태 원형, 방형, 장방형이 확인되었고, 이 중 일부는 중복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부시설은 온돌시설과 무시설식 유구가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

유물은 청자, 분청사기, 기와편, 도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수혈유구는 평면형태 원형, 방형, 장방형, 부정형 등이 확인되는데, 부정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기편이나 도기편 등이 출토되는 유구가 간혹 확인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성격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건물지나 주거지의 부속시설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³⁵⁾

이를 종합해 보면, 유구 분포에 있어 고려시대 건물지는 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조선시대에는 전 지역에 걸쳐 유구가 고르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려시대의 건물지의 성격과 전체 분포양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후 조선시대로 오면서 인천도호부와 학산서원 등과 함께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이 보다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남촌동고래실골유물산포지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유적’에서 남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남촌동고래실골유물산포지’가 위치한다. 고래실골 유물산포지에서도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토기, 자기, 기와편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고 유물산포지 일대 원지형이 잘 남아있는 지역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동안 인천지역 일대에서는 구월동 유적이거나 수산동 유적과 같이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대규모의 유적이 발굴된 예가 없다. 이후 고래실 유물산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구월동 및 수산동 유적과 유사한 양상의 유구들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III. 인천지역 고고유적의 성격

인천지역에서는 2000년 이후 구석기유적에 대한 발굴성과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천지역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 유구 및 유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문화적 성격을 이해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내륙지역과 문화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패총과 주거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5) 『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보고자료』,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5, pp. 20-22.

이들 유적은 연평도, 영종도 등 도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인천 내륙지역에서는 특기할만한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는 인천지역이 개항이후 일찍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상당수 유적들이 파괴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최근 영종도에서 다수의 신석기시대 주거지들이 발굴되어 인천지역 신석기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아직 정보고서들이 출간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주거지의 구조 및 출토유물들로 볼 때 인접한 경기내륙지역과 유사한 문화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들 주지는 임시 거주가 아닌 영구정착촌으로서 마을을 형성하여 생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패총 유적의 경우 중부서해안 지역에서는 드물게 연평도(대연평도) 까치산패총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행되어 신석기 유적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시행된 바 있다.³⁶⁾ 2000~2001년 문화재연구소가 ‘소연평도패총’, 2002년 ‘대연평도 모이도패총’에 이어 2003년 ‘대연평도 까치산패총’의 발굴을 시행하였다.

대연평도 까치산 패총에서는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5기, 주거지 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는 원형이며 중앙에서는 타원형의 노지가 위치하고 있다.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 $5020 \pm 40 \sim 5370 \pm 70$ B.P.년으로 대략 200~300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유적이 일정한 시기에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 을왕동 유적 절대연대측정에서도 B.C. 3000년경으로 나타나 까치산패총 유적의 연대와 거의 동일한 시기로 일치하고 있다. 즉, 인천지역에서는 늦어도 기원전 3000년 경 신석기문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형태는 원형, 방형, 장방형등이 주류를 이루며 무시설식 수혈노지가 대부분 사용되었다. 원형의 주거지는 외부와 내부가 모두 원형을 나타내는 주거지와 외부는 원형으로 굴착하고 내부는 방형으로 생활공간을 조성한 것도 있다. 주거지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방형으로 돌출형 출입시설과 4주식의 기둥을 배치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주거지는 사람들이 임시로 거주했던 지역이 아닌 상당한 규모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대규모 항구적 취락지로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거주해왔음을 의미한다. 주거지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 석부, 갈돌, 석촉, 어망추, 굴지구등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다.

인천지역의 청동기 유적은 신석기유적과는 달리 최근 활발한 조사가 이루어져 인접한 경기지역 청동기 유적과 비교 검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인천지역 지석묘의 경우 한반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군집을 이루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

36)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연평도 까치산패총』2005

다. 강화도의 경우 지금까지 확인된 160여기의 고인돌들은 고려산을 중심으로 대략 5~10개소 정도에 군집하여 발견되는 예가 대부분이다.³⁷⁾ 인천 내륙지역에서도 문학산 일대 학익동, 주안동등 지석묘가 소규모 군집을 이루어 발견되는 예도 있으며 대곡동과 같이 수십기의 대규모 지석묘군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대곡동의 경우 소위 탁자식과 개석식 지석묘가 함께 발견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천지역에 이들 지석묘를 축조한 대규모 인구집단이 존재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다양한 형식의 지석묘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의 경우 해안과 인접한 인천지역만의 독특한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천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인접한 경기도 일대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구조나 유물의 조합 등에서는 큰 차이점이 관찰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인천지역에서는 세장방형과 방형, 장방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들이 발견되는데, 이 가운데 세장방형의 대형 주거지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장축의 길이가 10m 내외의, 장축과 단축의 비율이 2:1 이상인 주거지들은 소위 역삼동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원당동유적, 문학동유적, 동양동유적 등에서 그 예가 확인된다. 인천지역에서 확인된 세장방형의 대형 주거지는 B.C. 1300~1000년 사이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대형의 세장방형 주거지 외에 방형, 장방형의 중·소형 주거지도 발견되지만 청동기시대 중기로 비정되는 송국리 유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송국리형 주거지는 그 출토 예가 드문 반면에 역삼동유형의 세장방형 주거지와 장방형 주거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인천지역의 청동기문화가 상대적으로 내륙지역보다 이른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지역에서 2000년대 이후 확인된 역사시대 유구들 중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분구묘이다. 분구묘란 분구를 먼저 조성한 뒤 일정 부분 분구를 헐기도 하면서 그 안에 하나 이상의 매장시설을 축조해 넣는 방식의 무덤을 분구묘(墳丘墓)라 한다. 전형적인 분구묘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서해안 일원에서 원삼국시대 말기에 등장하여 6세기까지 유행했던 묘제라고 할 수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문화재보호재단의 발굴조사에 의해 동양동에서 분구묘가 확인된 바 있다. 조사 당시에는 분구묘가 경기 남부에서만 확인되고 인천지역에서는 최초로 확인되어 분구묘의 북

37) 강동석, 「인천 연안지역 지석묘사회의 성격과 특징에 대하여」, 『고고학 6-2호』, 2007.

유태용, 「강화도 지석묘의 축조와 족장사회의 형성과정 연구」, 『박물관지 4』, 인하대학교, 2002.

한계선을 나타내는 유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³⁸⁾

이후 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운서동에서 2기, 중산동에서 2기의 분구묘가 확인된 바 있다.³⁹⁾ 분구묘와 유사한 형태의 묘제로는 주구묘(주구토광묘)가 있다. 주구묘(周溝墓)는 매장 주체부를 중심으로 그 둘레에 도랑을 굴착한 형태의 분묘이다. 주구묘는 형태에 따라 주구 움무덤(토광묘)과 방형 주구묘로 분류된다. 주구 움무덤은 주구가 매장부의 상면부에 눈썹 형태나 ‘ㄷ’자 형태로 조성된 유형이다. 매장 주체부는 목관 구조가 기본이며, 별도로 부장 칸이 조성되어 있기도 하다.

중산동 분구묘에 대한 절대연대 측정결과 A.D. 250년에서 A.D. 540년 등 다소 광범위한 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나 보고자는 환두대도, 철모등의 편년을 근거로 볼 때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으로 추정하고 있다.⁴⁰⁾ 운서동 분구묘유적도 출토된 철모, 철촉, 환두대도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3세기 초반-후반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구월동 분구묘는 출토유물로 보아 4세기 중반-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⁴¹⁾ 이러한 조사결과들을 참고해 볼 때 인천지역 원삼국기 분묘들도 대략 3-4세기경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분구묘와 주구묘는 일반적으로 원삼국시대, 특히 마한(馬韓)의 묘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고분의 명칭과 속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학술적인 논쟁들을 본고에서 다룰 수는 없으나 구월동 및 운서동, 중산동에서 다수의 분구묘가 확인됨으로서 인천·경기일대의 원삼국-삼국시대 묘제 및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IV.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지역 선사시대 유적의 분포양상은 역사시대의 문화권과 거의 일치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선사시대 유적이 특정지역에 밀집해 분포하는 것은 해당지역이 경작이나 자원 확보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 집단이 후대의 문화권 형성에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철기시대 이후 삼국기 유적들의 경우 아직 발굴된 유적이 많지 않아 인천지역만의 독특한 성격을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특히 주거유적이나 무덤등 생활상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유적들이 많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문화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발굴조사된 유적의 정보고서들이 출간되고 보다 많은

38) 한국문화재보호재단·대한주택공사, 2007, 『인천 동양동 유적』.

39) 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인천 운서동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2011, 『인천 중산동 유적』.

40) 중앙문화재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 2011, 『인천 중산동 유적』, pp.290-295.

41) 『구월동 유적』, 2014, (재)한강문화재연구원, pp. 328-529.

자료의 축적이 이루어지면 보다 구체적인 문화상이 파악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지역의 경우 개항 이후부터 급속한 난개발에 의해 많은 유적들이 유실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문화재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사전계획에 따른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개발에 따른 산발적인 구제발굴만이 시행되는 경우 유적들이 보존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에서의 발굴조사활동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문화재를 보존, 복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회 고고학 아카데미

고지도로 보는 인천 지역의 옛 풍경

전종한 (경인교육대학교)

고지도로 보는 인천 지역의 옛 풍경

전종한 (경인교육대학교)

차 례

1. 고지도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어떤 고지도들이 전해오는가?
3. 고지도로 보는 원인천 지역
4. 고지도로 보는 부평 지역

1. 고지도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도를 만드는 과정, 즉 지도화 과정은 3차원의 지표 세계를 2차원 평면 위에 재현(represent)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따른다. 지도를 만들기 위한 재현이란 ‘누군가에 의한 재현’일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재현의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속한 주체가 재현한 것인가?’하는 질문을 말한다. 왜냐하면, 재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우선 지도화의 목적과 방법, 내용, 표현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지표상의 모든 현상들을 지도에 표현할 수는 없으므로 재현의 주체에 따라 어떤 현상들을 선별할 것인가 하는 판단도 달라질 것이다.

또한, 재현의 주체에 따라 지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지표를 인식하는 태도가 다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표에 대한 내면적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내면적 이미지의 표현 결과가 지도이므로, 우리는 지도를 통해 해당 지도를 제작한 주체의 내면 세계와 그를 둘러싼 당대의 역사적, 문화적 세계를 엿볼 수 있다(Jeon Jong-han, 2008). 바로 이 점이 고지도가 갖는 중요한 매력이고 의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고지도는 그 속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일종의 텍스트(text)로 간주할 수 있다. 고지도를 텍스트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어떤 고지도를 바라볼 때 지표의 실재를 담아낸 객관적 표현물이라기보다는 제작 주체가 처한 사회적 맥락 및 그의 내면에 있는 의미 세계의 반영물로서 이해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고지도의 제작 주체들은 지표 세계를 바라볼 때 아마도 오늘의 우리와는 다른 고유한 인지 방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세계를 동화시켜 고지도 상에 질서화하였을 것이다. 말하자면, 고지도에 나타난 공간 이미지(spatial images)를 세계에 대한 제작 주체의 ‘실존적 자기현현’(existential self-manifestation)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다.

고지도에는 그것을 ‘그린 주체’(화공) 내지 ‘(그리도록) 명령한 주체’(권력자)의 공간의식(spatial consciousness)이 담겨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고지를 통해 해당 고지도의 제작 주체들이 당대에 외부 세계(external world)를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였으며, 어떤 이미지로 내면화하였는지를 읽어낼 수 있다(전종한, 2002: 237-240). 이와 같

이 고지도를 텍스트로 간주하는 관점에 선다면, 고지도를 평가할 때 해당 고지도가 실제 세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표현했느냐’, 즉 정확성이라는 잣대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제작 주체가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면 지도에 실제보다 크게 혹은 상대적으로 부각시켜 그렸을 것이고, 그가 반대로 의미 없다고 인식한 현상에 대해서는 설령 인지하고 있었다라도 지도에 표현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고지도 사례는 매우 많다.

2. 어떤 고지도들이 전해오는가?

1) 전해 오는 고지도들: 주요 유형

이 글에서 소개하려는 인천광역시의 옛 모습을 담은 고지도들은 모두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고려시대 이전에도 지도가 만들어졌다는 기록은 다양한 사료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현전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 조선시대에는 조선 전도, 군현 지도, 관방 지도 등 매우 다양한 목적과 축척의 고지도들이 만들어졌고 그 중 대다수가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그 중 인천광역시 수준의 공간 규모를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기에 적합한 고지도는 조선 전도와 같은 소축척 지도가 아니라 각종의 군현 지도들일 것이다.

군현 지도란 조선시대 지방 행정구역인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을 그린 지도를 말한다. 이들 지방 행정구역을 총칭하여 ‘읍’(邑)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군현 지도를 읍지도(邑地圖)라고도 불렀다. 군현 지도의 발달은 조선 후기의 지도 제작에서 보이는 현저한 변화 중의 하나로서, 현재 전하는 군현 지도는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양보경, 1995: 60). 그리고 대부분 군현 지도들이 각 군현의 통치 중심지를 중심으로 행정 타운과 도로망, 군사 시설 등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군현 지도의 제작 목적에는 통치 및 군사적인 면이 강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군현 지도는 소규모 지역을 크게 그린 대축척 지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줄기와 하천의 흐름 등 자연 환경은 물론이고 읍의 치소(행정 타운), 취락 분포, 도로망이나 해로, 시장과 농경지, 교육 및 제사 장소, 통신 및 군사 시설의 위치 등 다양한 인문 경관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군현 지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낱장으로 그려진 유형, 읍지(조선시대 각 지방의 지리지)의 부록으로 첨부된 유형, 그리고 지도집(혹은 지도첩)으로 발간된 유형이 그것이다.

이 중 지도집으로 발간된 유형은 전국의 군현 지도들을 총망라해서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군현 지도집으로는 《해동지도》(규장각), 「동여도」(규장각), 《1872년 지방지도》 등 방안을 사용하지 않은 회화식 군현 지도집과, 이 있다. 《조선지도》(규장각), 《팔도군현지도》(규장각), 《해동여지도》(국립중앙도서관) 등 각 군현을 격자 모양의 방안 위에 그린 소위 방안식 혹은 경위선표식(經緯線表式) 군현 지도집이 있다.¹⁾

1) 이 중《해동지도》와《1872년 지방지도》는 1995년이후 규장각에서 영인하여 관련 학계와 단체에 배포하였다. 《해동지도》(규장각)는 1995년 삼성문화재단의 지원에 의해 출간되었고, 《1872년 지방지도》는 『조선후기 지방지도』라는 제목으로 1996년부터 2002년에 걸쳐 발간되었다.

회화식 군현 지도란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표를 표현한 지도로 일명 그림식 지도라고도 하며, 방안식 군현 지도란 지표 위에 가상의 방안을 설정하여 거리 표현의 객관성 및 축척의 동일성을 기한 지도로 경위선표식 지도라고도 부른다. 회화식 지도가 당대 지도 재현 주체의 심상 지도(mental map)를 잘 반영한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크다면(전중환, 2008), 방안식 지도는 격자 모양의 방안을 지표 위에 씌워 지표 세계를 동일한 비율로 축소함으로써 정밀성과 과학성의 면에서 그 가치가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이찬, 1981; 양보경, 1995; 김기혁, 2007).

이 글에서는 원인천, 부평, 강화 및 교동, 용진 지역의 고지도들을 살펴봄에 있어 회화식 지도집 3종과 방안식 지도 2종을 선별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고지도에서 보이는 인천광역시의 옛 모습을 소개하기로 하며, 논의 순서는 이들 지도를 발간한 시대 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 글에서 다루는 5종의 군현 지도집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2) 주요 군현 지도집 개관

(1) 《해동지도》(18세기 중반, 회화식)

이 지도집에는 조선 전도, 도별 지도, 군현 지도를 비롯해 천하도, 중국도, 왜국지도 등 다양한 종류의 지도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군현 지도에 한정해서 보면, 이 지도집의 발간 시기는 1750년대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수록된 모든 군현 지도들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다만, 대부분의 군현 지도들이 1720~30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배우성, 《해동지도》 총설, 규장각).

《해동지도》에 수록된 군현 지도들은 지형 지물의 표시 방향, 산계, 수계의 표시 등에 있어서 적어도 동일 도 안에서는 통일성을 보인다. 그리고 각 군현 지도의 여백에는 호구, 전결, 곡물, 군병, 건치연혁, 산천, 군명, 고적, 역원, 서원, 불우, 토산 등의 항목과, 방위를 알려주는 방면 주기가 들어 있다. 이와 같이, 《해동지도》는 지도를 중심으로 지리지를 결합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각 군현들 간을 잇는 주요 도로들을 매우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2) 《조선지도》(18세기 중·후반, 방안식)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도의 군현 지도를 수록한 지도집이다. 울릉도는 오늘날과 달리 경상도가 아닌 강원도 편에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 편에는 연천, 가평, 양주, 포천, 영평 등 5개 고을이 누락되어 있다. 이 지도집은 비변사에서 보관하며 사용하던 지도로 확인되었으며, 모든 군현 지도가 4.2cm의 방안(方案) 위에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기봉, 《조선지도》 총설, 규장각). 다시 말해서, 앞에서 소개한 《해동지도》와 달리 동일한 축척을 적용한 군현 지도라는 뜻이고, 지도에 표현된 지리 정보의 위치와 분포가 그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의미이다.

《해동지도》(규장각)는 1995년 삼성문화재단의 지원에 의해 출간되었고, 《1872년 지방지도》는 『조선후기 지방지도』라는 제목으로 1996년부터 2002년에 걸쳐 발간되었다.

(3) 《광여도》(19세기 전반, 회화식)

이 지도집의 전체적 구성은 앞에서 소개한 《해동지도》와 매우 유사하다. 즉, 세계지도, 외국지도, 조선전도 등이 제시되어 있고 그 뒤로 도별 지도와 군현지도들을 수록하고 있다. 지도에 나타난 각 군현의 윤곽과 지도에 표현된 주요 지리 정보 역시 해동 지도와 유사하여 《해동지도》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도로 평가되고 있다. 해동 지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군현 지도들에서 도로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요 역원과 고개 등 주요 도로 상에 입지했던 지리 정보들은 표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해동지도》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여기에 수록된 군현 지도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4) 「동여도」(19세기 중반, 방안식)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지도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저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이다. 목판본인 흑백의 <대동여지도>와 달리 천연색으로 표현된 필사본 지도이다. 지도에 기입된 지명은 약 18,000여 개로서 현재 전하는 전국 지도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명이 적혀 있는 지도라 할 수 있다. 풍수지리 사상을 반영하여 백두산으로부터 시작된 산줄기가 전국 곳곳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지도에 표현된 군현 규모의 지리 정보가 대단히 다양하고 자세한 편이다. <대동여지도>와 마찬가지로 십 리마다 방점을 찍어 거리 표현의 객관성을 기한 지도이다.

(5) 《1872년 군현지도》(19세기 후반, 회화식)

조선은 임란, 호란의 양란을 겪은 이후 18세기 영·정조대를 중심으로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 정치·경제가 안정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지역 간의 유통 또한 활발해졌다. 그 후 19세기에는 흥선대원군의 주도 하에 세도 정치를 타파하고 민생을 안정화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개혁 정치를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1871년에 전국적인 읍지 편찬 사업을 실시하였고, 1872년에는 전국 차원의 군현 지도 제작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렇게 제작된 지도집을 ‘1872년 군현 지도’ 혹은 ‘조선 후기 지방 지도’라 부른다. 이 지도집에 수록된 군현 지도들에는 각 군현의 행정 중심지인 치소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교통로, 목장, 산성, 진보 등 다양한 공간 정보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옛 군현 지도를 수록한 대표적인 고지도집이라 평가할 수 있다.

2. 고지도로 보는 원인천 지역

(1) 《해동지도》 「인천」 (18세기 중반, 회화식)

이 지도는 지도의 오른 편에 바다가 위치한 것으로 보아 지도의 위쪽을 남쪽으로 하여 인

천 지역을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지도에서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 아래 쪽이 북쪽,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 방향을 가리킨다. 이 지도에 나타난 지역의 범위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동구, 남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일대와 시흥시 일부이다.

지도의 오른쪽 중앙부에 객사, 아사, 향교 등의 기와 건물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인천도호부의 치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의 위치는 지금의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이며, 현재 문학초등학교가 들어선 일대이다. 치소 안에는 학산서원이 기입되어 있다. 이 서원은 지금의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문학터널 북쪽 입구 부근에 위치했던 서원으로, 조선시대 인천 지역의 유일한 사액서원이었다. 이 서원에서는 인천도호부사를 지냈던 이단상(1628-1669)과 이희조(1655-1724) 부자를 제향하였으나, 1871년(고종 8)에 단행된 서원 철폐령에 따라 혁파되었다. 한편, 치소 남쪽으로 문학산성을 묘사한 성곽 기호가 보이며, 그 밑에 문학산성 봉수라고 기입되어 있어 당시 문학산 정상부에 봉수대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천도호부」 편에 의하면, ‘문학산성 봉수는 남쪽으로 안산군의 오질이(吾叱耳)에 응하고 북쪽으로 부평부의 축곶산(楸串山)에 응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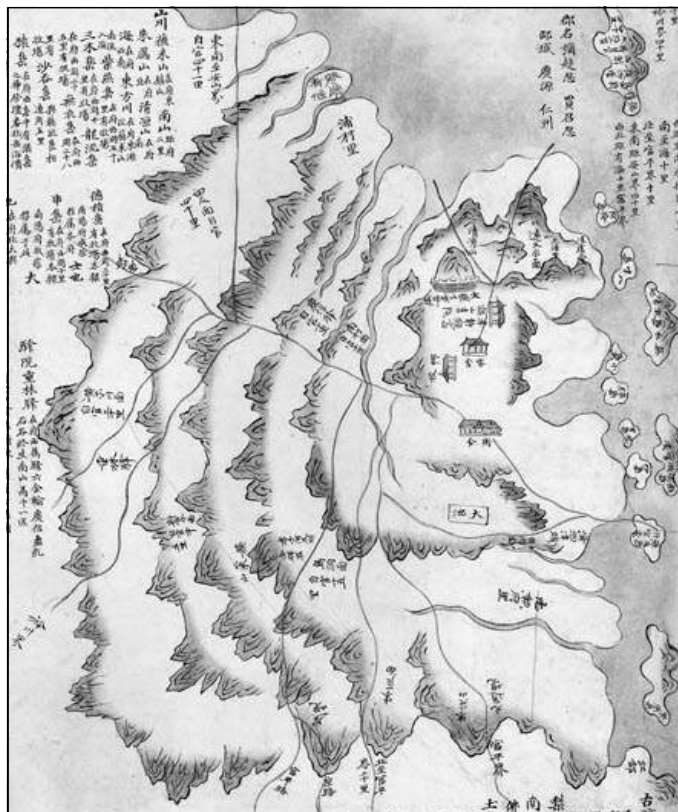


그림 1. 《해동지도》 「인천」의 주요부



그림 2. 《해동지도》 「인천」의 주요부 상세도

지도에 표현된 주요 공간 요소들로는 산줄기와 물줄기, 치소에 있던 관아 건물들, 치소로부터 뻗어나간 도로들, 주요 산 이름과 행정 지명들, 섬 이름 등이다. 특히 산줄기와 물줄기는 마치 치소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산줄기 표현은 지도 제작 주체에게 관념화 된 치소의 중심성을 이미지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 산으로는 치소를 중심으로 동쪽에 소래산(蘇萊山), 북쪽에 주안산(朱岸山), 남쪽에 청량산(淸涼山)이 표시되어 있다.

치소를 중심으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도로들이 표시되어 있다. 남서쪽으로 청량산을 지나가는 도로와 덕적도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있었고, 동쪽으로 안산으로 가는 도로 및 그 중간에서 남쪽으로 갈라져 남양으로 가는 도로, 동북쪽으로 원통 고개를 거쳐 부평으로 가는 도로 및 성현 고개를 지나 한양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각각 그려져 있다. 주요 도로들에는 중림역(重林驛), 경신역(慶信驛), 제물원(濟物院) 등의 역원이 표시되어 있다. 중림역은 현재의 시흥시 과림동 중림 마을에 설치되어 있던 찰방역이고, 경신역은 현재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 경신 마을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천도호부」 편에 의하면, ‘중림역에 예속된 역이 여섯인데 경신역, 반유역, 석곡역, 금륜역, 종생역, 남산역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물원은 방면주기에 ‘부의 서쪽에 있다.’고 기입되어 있는데, 고려말 계양부사를 지냈던 이규보의 시에 ‘자연도 제물원의 정자에서 놀며 … 시를 짓다.’는 제목의 율시가 전하는 것으로 보아 자연도에 있던 역임을 알 수 있다.

바다에는 무의도, 용유도, 팔미도, 덕적도, 자연도 등의 섬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무의도와 용유도에는 목장이 있었음을 표시하고 있고, 제물진(濟物津) 앞의 월미도[擘尾島, 월미도(月尾島)]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는 행궁(行宮)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치소에서 가까운 앞바다에 원도(猿島)가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천도호부」 편에 의하면 ‘원도는 치소의 서쪽 55리 되는 곳에 있으며 섬 가운데에 신제단(神祭壇)이 있는데 봄과

가을에 악독해(嶽瀆海)에 제사를 지낼 때 수령이 친히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곳이 서해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섬임을 알 수 있다.

육지에 기입된 행정 지명들로는 남촌면(南村面), 대진리(大津里), 신고개면(新古介面), 원우이면(遠又畝面), 이포면(梨浦面), 전반면(田反面), 조동면(鳥洞面), 주안면(朱岸面), 자소면(自所面), 충훈부리(忠勳府里), 황등천면(黃等川面) 등의 면 이름과 포촌리(浦村里), 효자동(孝子洞) 등의 촌락 이름이 있다. 포촌리는 지금의 소래 포구 일대로 추정된다. 이 외에 능허대(凌虛臺)와 봉선대(鳳仙臺), 그리고 대지(大池)라는 연못이 내륙에 있고 해안가에는 진청신언(賑廳新堰)이라는 방조제가 표시되어 있다. 진청신언이란 당시 '진휼청(賑恤廳)'이라는 국가 기관에서 만든 제언'임을 알려주는 지명으로 보인다. 능허대는 삼국시대에 중국을 오가던 나루터 부근의 섬터로서 능허대 아래에는 대진(大津, 일명 '한나루')이라는 나루터가 있었다. 능허대의 위치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94-54번지이다. 봉선대는 오늘날의 화성시 비봉면에 있던 곳으로 당시 인천도호부의 월경지가 그곳을 둘러싸고 설정되어 있었다.

(2) 《조선지도》 「인천」 (18세기 중·후반, 방안식)

이 지도는 지도의 왼 편에 바다가 위치한 것으로 보아 지도의 위쪽을 북쪽으로 하여 인천 지역을 묘사한 정방위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지역의 범위 역시 앞에서 살펴본 《해동지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인천광역시 동구, 남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일대와 시흥시 일부이다.

지도에 표현된 주요 공간 요소들로는 산줄기와 물줄기, 치소의 위치, 치소로부터 뻗어나간 도로들, 주요 산 이름과 행정 지명들, 섬 이름 등이다. 이 지도는 앞에서 본 《해동지도》와 달리 치소의 건물들은 묘사하고 있지 않다. 산줄기와 물줄기는 매우 간략히 표현되어 있으며, 그 전체적 형태는 동심원상으로 산줄기를 묘사한 《해동지도》의 경우와 다르게 실제와 비교적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외에 행정 지명들과 섬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치소의 위치는 문학산 남쪽에 빨강색 채색된 원으로 특별히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그림 3. 《조선지도》 「인천」의 주요부



그림 4. 《해동지도》 「인천」의 주요부 상세도

주요 산으로는 소래산, 주안산, 문학산 등의 산 이름이 보인다. 산줄기를 넘나드는 고개로 는 부평으로 넘어가는 성현(星峴)과 금천으로 넘어가는 방향에 도리현(道里峴)이 보인다. 하 천으로는 포오천(浦五川)과 사천(蛇川)이 확인된다. 포오천은 오늘날의 안산시 시화호로 유 입하는 반월천으로 추정되고, 사천은 현재의 인천광역시 소래 포구로 흘러드는 하천의 한 지류이다.

치소를 중심으로 두 갈래의 도로가 빨간 실선으로 그려져 있다. 《해동지도》의 경우와 달리 두 개의 간선 도로만 소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하나는 북동쪽으로 성현을 넘어 부평으 로 가는 도로이고,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중립역을 지나 금천으로 가는 도로이다. 남쪽으로 갈라져 남양으로 가는 도로, 동북쪽으로 원통 고개를 거쳐 부평으로 가는 도로 및 성현 고 개를 지나 한양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각각 그려져 있다. 중립역을 제외한 다른 역원들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읍치 서쪽에는 ‘서원(書院)’이라는 지명이 기입되어 있는데 《해동지 도》에 표시되어 있던 학산서원(鶴山書院)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는 월미도, 영종도, 자연도, 삼목도, 용유도 등의 섬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무의도 에는 목장이 있었다는 표시가 있고 함부로 벌목하는 것을 금하는 금산(禁山)이 지정되어 있 었다. 월미도에는 행궁(行宮) 표시가 있고, 월미도 아래에는 원도가 있는데 이곳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서해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 있었던 곳이다.

육지에 기입된 행정 지명들로는 구제면(舊濟面), 남촌면(南村面), 다소면(多所面), 봉선대 (鳳仙臺), 원우면(遠又面), 이포면(梨浦面), 일반면(日返面), 조동면(鳥洞面), 주안면(朱岸面), 황등면(黃等面) 등의 면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이들 면 이름 중에서 구제면과 다소면은 《해동지도》에 등장하지 않았던 지명이고, 원우면과 일반면 등은 《해동지도》와 비교할

때 한자가 축약되거나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또한, 《해동지도》의 경우와 달리 촌락 이름은 기입되어 있지 않다. 안산과의 경계를 지나 남쪽에는 월경지였던 이포면과 그곳에 있던 봉선대(鳳仙臺)가 표시되어 있다. 이포면의 위치는 오늘날의 화성시 남양면 문호리 및 비봉면 유포리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3) 《광여도》 「인천」 (19세기 전반, 회화식)

이 지도는 인천 지역의 옛 지도 중 가장 화려하고 예쁘게 채색된 지도라 할 수 있다. 지도의 오른 편에 바다가 위치한 것으로 보아 지도의 위쪽이 남쪽을 가리키고, 아래쪽이 북쪽,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해동지도》 「인천」의 방위 표현과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지역의 범위 역시 앞에서 살펴본 《해동지도》 「인천」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인천광역시 동구, 남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일대와 시흥시 일부이다.



그림 5. 《광여도》 「인천」의 주요부



그림 6. 《광여도》 「인천」의 주요부 상세도

지도에 표현된 주요 공간 요소들로는 산줄기와 물줄기, 치소의 위치, 주요 산 이름과 행정 지명들, 섬 이름 등 《해동지도》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가령, 치소를 중심으로 동심원 형식으로 산줄기를 표현하고 있고, 주요 건물의 명칭이나 문학산성을 묘사한 방식 또한 《해동지도》와 비슷하다. 각 면 이름 외에 대진리, 충훈부리 등의 촌락 이름도 그대로 기입되어 있다. 중립역, 경신역 등의 역원도 표시되어 있고, 원통치, 성현 등의 고개도 나타나 있다. 진청신언이라는 방조제도 보이고, 월경지였던 이포면과 봉선대도 표시되어 있다. 바다에 표시된 덕적도, 팔미도, 무의도, 원도, 용유도, 자연도 등의 섬들도 《해동지도》와 동일하게 등장한다.

《해동지도》와 비교할 때 가장 다른 부분은 도로를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소래산과 주안산은 표시되어 있으나 청량산은 기입되지 않았다. 《해동지도》의 포촌리(浦村里) 위치에는 포리포(浦里浦)라는 지명이 대신 기입되어 있다. 이곳은 현재의 소래 포구 일대로 추정된다. 하천 이름도 전혀 기입되지 않았다.

(4) 「동여도」 ‘인천’ 부분 (19세기 중반, 방안식)

이 지도는 지도의 왼 편에 바다가 위치한 정방위 지도이다. 인천 지역이 주변의 부평, 안산 등과 마주하는 행정 경계가 천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당시 인천 지역의 관할 범위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동구, 남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일대와 시흥시 일부이다.

지도에 표현된 주요 공간 요소들로는 산줄기와 물줄기, 치소의 위치, 치소로부터 뻗어나간 주요 도로들, 주요 산 이름과 행정 지명들, 섬 이름 등이다. 이 지도에 연맥식으로 표현된 산줄기 묘사 방식, 간략히 표현한 주요 도로, 치소 내의 주요 건물들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앞에서 본 《조선지도》의 「인천」과 유사한 것이다.

이 지도의 큰 특징은 군현 간의 행정 경계를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과 주요 도로를 바다의 섬까지 연장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의 다른 고지도들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지명과 섬 이름을 기입하고 있다. 《해동지도》에서는 포오천 이북 지역이 인천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지도에서는 안산 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서, 《해동지도》에서는 포오천을 기준으로 이북 지역은 인천 관할, 이남 지역은 안산 관할이었는데, 이 지도에서는 포오천 이북 지역까지 안산 관할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7. 「동여도」 ‘인천’ 일대

주요 산으로는 소래산, 청량산이 기입되어 있으나 주안산은 보이지 않는다. 고개 이름은 성현만 확인되고 원통치는 기입되지 않았다. 면이나 촌락 이름의 경우 남촌, 신현, 다소, 제물 등 형태소를 제거한 채 이름소만 기입하였다.

도로는 치소를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 제물을 거쳐 영종도, 자연도, 용유도로 이어지는 간선이 표시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소래산 남쪽을 지나 시흥으로 가는 간선, 북동쪽으로는 성현을 넘어 부평 및 한양으로 가는 간선, 동남쪽으로는 사천을 건너 안산으로 가는 간선이 표시되어 있다. 문학산 아래에 치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에 ‘부내(府內)’라는 지명이 기입되어 있다.

바다에는 영종도, 월미도, 자연도, 삼목도, 용유도 등의 섬들이 표시되어 있다. 월미도에는 행궁(行宮)이 표시되어 있고, 자연도에는 백운산과 석화산, 사찰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용유도와 무의도에는 목장이 기입되어 있다.

육지에 기입된 행정 지명들로는 남촌(南村), 다소(多所), 신현(新峴), 원우이(遠又尔), 전반(田返), 조동(鳥洞), 제물(濟物), 주안(朱岸), 황등천(黃等川) 등의 면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남쪽으로 안산을 건너 이포면과 봉선대 일대가 소규모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면 여전한 인천의 월경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1872년 군현지도》 「인천」 (19세기 후반, 회화식)

이 지도는 지도의 왼 편에 바다가 위치하는 정방위 지도이다. 이 지도에 나타난 지역의 범위 역시 인천 지역의 다른 고지도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인천광역시 동구, 남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일대와 시흥시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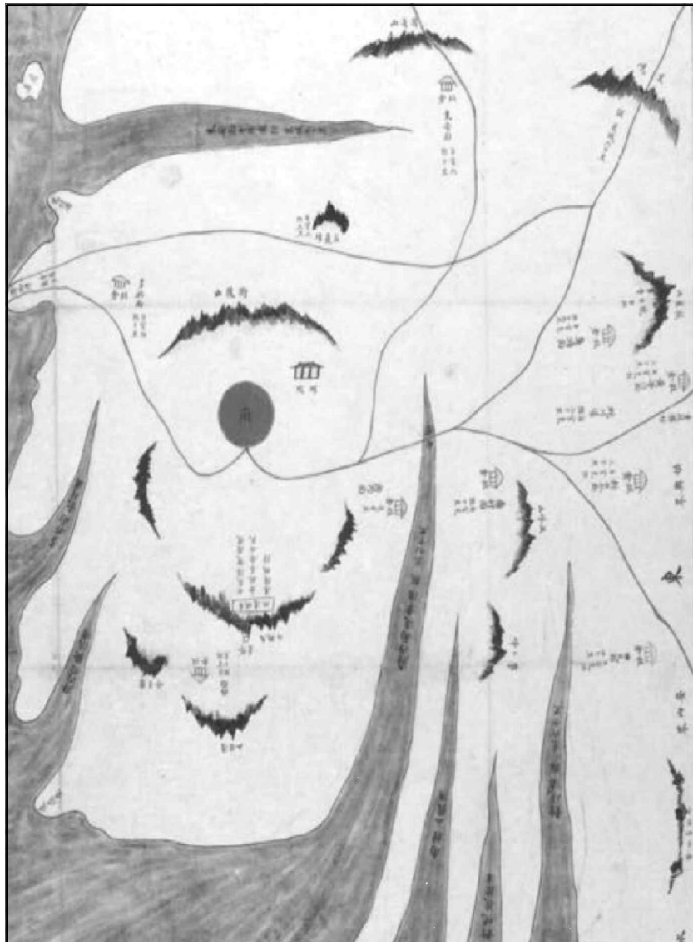


그림 8. 《1872년 군현지도》 「인천」의 주요부

지도의 중앙부에는 빨갛게 채색된 원이 그려져 있고 원 안에 ‘부(府)’라고 기입하고 있어 이곳이 치소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지명은 치소를 중심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 가며 기입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다른 고지도들과 달리 산줄기를 연맥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군데군데 분포하는 소래산, 문학산, 청량산 등의 산지들을 각기 독립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 지도의 특색 중 하나이다. 또한, 치소 안의 주요 관아 건물들을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치소

주변의 주요 건물들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관아 동쪽에 위치한 향교가 표시되어 있고, 관내에 분포하는 9개소의 사창(社倉)들을 소재지와 함께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도로의 경우, 다른 고지도들처럼 단순화하여 표시하기보다는 굵은 형태로 실제 형태를 반영하듯 구불구불하게 그리고 있다. 치소에서 서쪽의 제물진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제물진에서 치소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동쪽의 석암장(石巖場)을 거쳐 부평 및 한양 방향으로 가는 도로가 표현되어 있다. 치소로부터 동쪽으로는 소래산 남쪽의 중림역을 지나 시흥으로 가는 도로, 동북쪽으로는 성현을 지나 한양으로 가는 도로, 북쪽으로는 원통산(圓通山)을 지나 부평으로 가는 도로, 동남쪽으로는 안산으로 가는 도로가 각각 묘사되어 있다.

이 밖의 특징으로는 바다가 육지로 깊숙이 들어온 주요 만입부(灣入部)마다 주요 포구 이름을 기입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몇몇 만입부의 경우 그곳의 포구로부터 한양까지의 거리를 표시하고 있다. 북쪽에 위치한 포구로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제물진 북쪽에 주안면 십정포(朱安面十井浦)가 위치하고 이곳에서 경성(京城)까지는 칠십리로 기입되어 있다. 치소의 서쪽으로는 다소면장천포(多所面長川浦)가 있다. 그 남쪽에는 부내면비랑포(府內面飛浪浦)가 있다. 치소의 동남쪽으로는 부내면도장포(府內面道章浦)가 위치하고, 이곳으로부터 경성까지는 칠십리로 기입되어 있다. 이 포구의 안쪽에는 주교(舟橋), 즉 배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부내면도장포 동남쪽으로는 남촌산후포(南村山後浦), 신현후음포(新峴後陰浦), 신현포(新峴浦)가 차례로 표시되어 있다. 신현포에서 경성까지의 거리는 육십리로 기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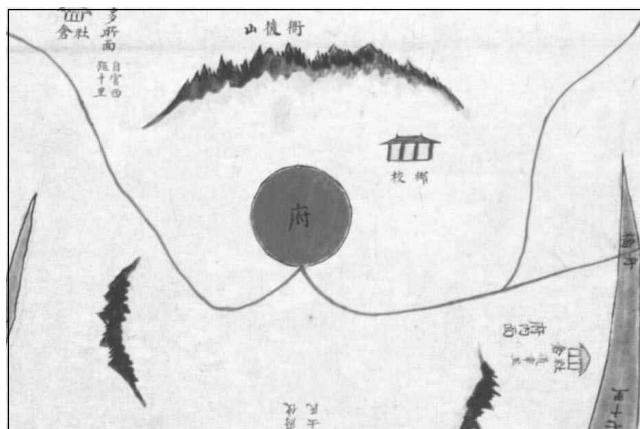


그림 9. 《1872년 군현지도》「인천」의 주요부 상세도

바다에는 월미도(月尾島), 팔미도(八尾島), 영종(永宗), 호도(虎島) 등의 섬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다른 고지도들에 비하면 매우 소략하게 표현하였다. 반면에 육지의 지리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행정 구역인 남촌면(南村面), 다소면(多所面), 부내면(府內面), 서면(西面), 신고개면(新古介面), 이포면(梨浦面), 전반면(田反面), 조동면(鳥洞面), 주안면(朱安面), 황등천면(黃等川面) 등을 형태소와 함께 모두 정식으로 표현하

였고, 제물진(濟物津), 중림역촌(重林驛村), 화촌포(花村浦) 등의 특수 기능을 하던 취락들도 별도로 표시하였다. 사천장(蛇川場), 석암장(石巖場) 등과 같은 장시(場市)의 위치도 나타냈고, 효일사(曉日寺)와 같은 사찰도 표현하였다. 사창의 위치도 표시하였는데, 다소면, 주안면, 조동면, 황등천면, 신고개면, 남촌면, 부내면, 서면, 전반면 등 모두 9개 면에 있었다. 안선너머의 월경지인 이포면(梨浦面)도 여전히 표시되어 있고, 관으로부터 치소로부터 1백 10리 거리라고 기입하고 있다.

3. 고지도로 보는 부평 지역

(1) 《해동지도》 「부평」 (18세기 중반, 회화식)

이 지도는 지도의 아래 편에 한강 본류가 위치하고 오른 편에 부평의 진산인 계양산이 위치하는 것으로 위쪽을 서쪽으로 하여 인천 지역을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지도에서는 지도의 위쪽이 서쪽, 아래쪽이 동쪽, 오른쪽이 북쪽, 왼쪽이 남쪽 방향을 가리킨다. 이 지도에 나타난 지역의 범위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일대와 부천시 일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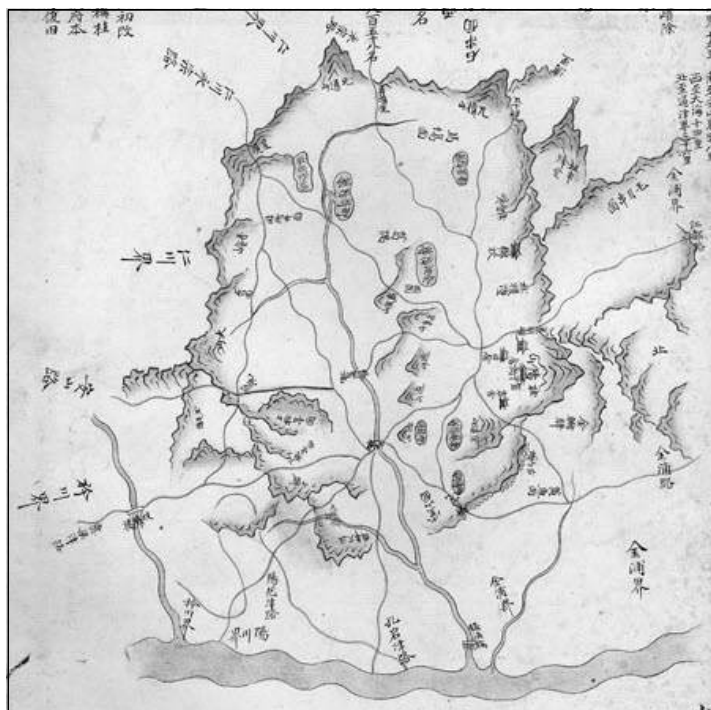


그림 10. 《해동지도》 「부평」의 주요부

계양산 남쪽에 부평야사(富平衙舍), 객사(客舍), 사창(司倉) 등의 건물 이름과 해당 건물들이 묘사된 곳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부평도호부의 치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의 위치는 지금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산동이며, 현재 부평초등학교가 들어선 일대이다. 치소 서쪽으로는 사직단과 향교가, 계양산에 이어던 동쪽 산줄기를 따라서는 고산성(古山城)이 표시되어 있다. 부평향교가 있던 자리는 오늘날의 계산동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정문에서 가까운 곳이다.



그림 11. 《해동지도》 「부평」의 주요부 상세도

지도에 표현된 주요 공간 요소들로는 산줄기와 물줄기, 치소에 있던 관아 건물들, 치소로부터 뻗어나간 도로들과 주요 고개, 행정 지명 등이다. 특히 산줄기를 묘사함에 있어 북쪽 산록에 위치한 치소를 둘러싸는 커다란 분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 분지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며 굴포천이 관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세는 산줄기와 사대문과 청계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한양의 풍수지리적 형국과 상당히 유사한 이미지이다.

오늘날 확인되는 부평의 실제 지형은 동쪽으로 저평하고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으나, 이 지도에서는 굴포천 일대를 제외하면 부평이 마치 전체적으로 산줄기로 둘러싸인 분지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또한 관아가 위치한 치소 남동쪽으로는 ‘조산(造山)’, 즉 인위적으로 조성한 산이라는 의미의 지명이 두 군데 기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비보(裨補) 풍수 경관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 그 지리적 결함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인위적 장치라는 뜻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이 지도는 부평 지역에 대한 당대의 풍수지리적 관념을 지도에 반영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조산공원로 33(용종동 208번지)에는 과거 이 일대에 있었다는 다섯 개의 조산을 기념한 오조산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주요 산으로는 계양산(桂陽山), 망조산(望造山), 명동산(名東山), 원적산(元積山), 원통산(元通山), 향안산(香安山), 증산(甌山) 등이 기입되어 있다. 이들로 이어진 산줄기를 넘나드는 주요 고개로는 가회현(佳會峴), 경명현(景明峴), 경현(瓊峴), 구십현(九十峴), 사현(莎峴), 성현(星峴), 정정현(井項峴) 등이 표시되어 있다. 경명현은 지금의 계양구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경명치, 일명 징맹이 고개를 말하고, 성현은 지금의 부평구에서 원인천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도로망은 치로를 중심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치소의 북쪽으로는 계양산 서쪽의 경명현을 넘어 강화도로 가는 도로, 계양산 동쪽 산록을 넘어 김포로 가는 도로가 있다. 김포로 가는 도로에는 금륜역(金輪驛)이라는 역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곳은 현재의 계양구 다남동 일대이다. 치소의 서쪽으로는 원적산 북쪽 산록의 구십현을 넘어 서해안으로 가는 도로, 원통산 북쪽 산록의 정정현을 넘어 영종도로 가는 도로, 그리고 치소의 남서쪽으로는 성현을 넘어 원인천 지역으로 가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다. 치소의 남쪽으로는 사현을 넘어 안산 및 금천으로 가는 도로, 치소의 동쪽으로는 양천의 양화진과 공감진으로 가는 도로가 각각 표현되어 있다.

부평의 고지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지리 정보는 교량과 방축이다. 부평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굴포천을 건너기 위한 교량들이 많이 있고, 특히 부평의 동쪽 지역에는 저습한 저평지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를 개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축들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 교량으로는 굴포교(掘浦橋), 대교(大橋), 대정교(大井橋), 수숙교(首蓆橋) 등이 보이고, 방축으로는 군가방축(郡哥防築), 동림방축(東林防築), 유등방축(柳等防築), 장성방축(長省防築), 전지방축(全池防築), 해기방축(鞋機防築) 등이 확인된다.

육지에 기입된 행정 지명들로는 당산면(堂山面), 동소정면(同所井面), 마장면(馬場面), 모월곶면(毛月串面), 상오정면(上梧亭面), 서면(西面), 석곶면(石串面), 석천면(石川面), 옥모면(玉毛面), 주화곶면(注火串面), 하오정면(下梧亭面), 황어면(黃魚面) 등의 면 이름과 포리(浦里)라는 촌락 이름이 있다. 포리는 현재의 서구 원창동에 있던 포구였다. 이 외에도 난유지(卵留池)라는 저수지, 축곶봉당(楸串烽堂) 즉 축곶봉수대가 기입되어 있다. 축곶봉수대는 지금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축곶산 정상에 있던 봉수대이다. 참고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천도호부」 ‘봉수’조에는 ‘성산봉수는 남으로 안산군 오질이 봉수에 응하고 북으로는 부평부 축곶봉수에 응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성산봉수는 인천 문학산 봉수의 다른 이름이다.

(2) 《조선지도》 「부평」 (18세기 중·후반, 방안식)

이 지도는 지도의 왼 편에 바다가 위치한 것으로 보아 지도의 위쪽을 북쪽으로 하여 부평 지역을 묘사한 정방위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지역의 범위는 앞에서 살펴본 《해동지도》 「부평」과 달리 서해 일대의 섬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략 현재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서구 일대와 부천시 일부이다.

지도에 표현된 주요 공간 요소들로는 산줄기와 물줄기, 치소의 위치, 치소를 중심으로 한

한 갈래의 간선 도로, 주요 산 이름과 행정 지명들, 섬 이름 등이다. 이 지도는 앞에서 본 《해동지도》와 달리 치소의 건물들은 묘사하고 있지 않다. 산줄기와 물줄기는 매우 간략히 표현되어 있으며, 그 전체적 형태는 풍수지리적 관념을 반영하여 부평의 지세를 묘사한 《해동지도》의 경우와 다르게 실제와 비교적 가깝게 표현되어 있다. 이 외에 행정 지명들과 서해의 섬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치소의 위치는 빨강색 채색된 원으로 특별히 강조하여 표현하였다. 다만, 부평의 치소가 계양산 북쪽에 표시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 부평 치소는 늘 계양산 남쪽에 위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소 위치를 아마도 잘못 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치소 옆에 기입된 ‘역(驛)’이라는 지명은 앞에서 본 《해동지도》를 참조할 때 계양산 북쪽에 있었던 금륜역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조선지도》 「부평」의 주요부

주요 산으로는 계양산, 원적산, 주안산, 소래산 등의 산 이름이 보인다. 산줄기를 넘나드는 고개로는 인천으로 넘어가는 성현(星峴)과, 서해안으로 넘어가는 방향에 경명현(景明峴)이 보인다. 하천의 경우 굴포천의 본류와 지류가 비교적 자세히 표현되어 있으나 하천 이름은 기입되어 있지 않다.

도로의 경우 《해동지도》와 달리 간선 도로만 간략히 표현하였다. 치소를 중심으로 동쪽의 양천으로 가는 간선 도로가 빨간 실선으로 그려져 있고, 굴포천 동쪽에서 남쪽의 인천으로부터 오는 간선과 만나 삼거리를 이루고 있다. 계양산 북쪽에는 금륜역을 지칭하여 ‘역’이라 기입하였고 경명현 부근의 산줄기에는 ‘봉(烽)’이라는 지명과 함께 봉수를 상징하는 빨간색 불꽃 모양을 그려 넣었다. 《해동지도》에서 보았던 축곶봉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는 기도(箕島), 응도(鷹島), 문지(文知島), 몰차(勿次島), 호도(虎島) 등의 섬 이름이 기입되어 있는데, 섬 안의 자세한 지리 정보는 표시되지 않았다. 해안 가에는 축곶(柵串), 석곶(石串) 등 바다로 불쑥 나간 지형을 뜻하는 곶(串) 이름이 보이는데, 석곶의 경우 석곶면

육지에 기입된 행정 지명들로는 당산면(堂山面), 동면(東面), 동소정면(同所井面), 마장면(馬場面), 모월면(毛月面), 상오면(上梧面), 서면(西面), 석곶면(石串面), 석천면(石川面), 수탄면(水呑面), 왕모면(王毛面), 주화면(住火面), 하오면(下梧面), 황어면(黃魚面) 등의 면 이름이 기입되어 있다. 《해동지도》에 없었던 동면(東面)과 수탄면(水呑面)이 새로 기입되었고, 모월곶면은 모월면으로, 상오정면과 하오정면은 각각 상오면과 하오면으로 개칭되었다.

이 지도 역시 원인천 지역의 《광여도》와 거의 유사한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부평 지역의 옛 지도 중 가장 화려하고 예쁘게 채색된 지도라 할 수 있다. 지도의 왼 편에 바다가 위치하고 있고 지도의 사방 가장자리에 동서남북의 방위를 표시하고 있어 정방위로 그려진 지도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지역의 범위는 앞에서 살펴본 《해동지도》「부평」보다는 훨씬 넓고 《조선지도》「부평」에 비해서도 서해와 한강 유역까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대략 현재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일대와 김포시 및 부천시 일부이다.



72 | 2016년 검단선사박물관 성인교육



그림 14. 《광여도》「부평」의 주요부 상세도

지도에 표현된 주요 공간 요소들로는 산줄기와 물줄기, 치소의 위치, 주요 산 이름과 행정 지명들, 섬 이름 등 《해동지도》에 표현된 지리 정보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산줄기의 경우 계속 이어진 형태의 연맥식 표현 방식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당대의 산줄기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고, 부평의 고지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비보 풍수 경관인 ‘조산(造山)’도 두 곳 표시되어 있다. 《해동지도》에서 보았던 부평 지역의 많은 교량과 방죽들도 어느 정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다만, 치소 부근에 표시된 주요 건물들의 경우 아사, 객사, 사창, 연무당, 향교 등 《해동지도》보다 좀 더 자세한 편이다. 《해동지도》에서는 계양산에 이어진 산줄기에 있는 고산성이 마치 계양산 동쪽에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으나, 이 지도에서는 계양산의 동북쪽 뒤편에 묘사하고 있어 보다 실제에 가깝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치소 북쪽의 김포 방면에는 금륜역이 표시되어 있다.

《해동지도》와 비교할 때 가장 다른 부분은 도로를 전혀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해안의 섬들이 부평의 다른 고지도들에 비해 훨씬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서해안에 표시된 섬들로는 물치도(物湍島), 성종도(成宗島), 난지도(蘆芝島), 기도(箕島), 울도(栗島), 응도(鷹島), 장고도(長古島) 등이 있고, 이 중 난지도와 청라도, 응도, 울도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섬 대부분은 오늘날에는 간척되어 육지로 편입된 상태이다. 지도 오른쪽에 그려진 한강 본류는 마치 바다처럼 크고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 15. 《광여도》에 표현된 부평 서해안의 섬들

(4) 「동여도」 ‘부평’ 부분 (19세기 중반, 방안식)

이 지도는 지도의 왼 편에 바다가 위치한 정방위 지도이다. 부평 지역이 주변의 인천, 김포, 양천 등과 마주하는 행정 경계가 천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당시 부평 지역의 관할 범위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일대와 김포시 및 부천시 일부이다.



그림 16. 「동여도」 ‘부평’ 일대

지도에 표현된 주요 공간 요소들로는 산줄기와 물줄기, 치소의 위치, 치소로부터 뻗어나간 주요 도로들, 주요 산 이름과 행정 지명들, 섬 이름 등이다. 이 지도에 연맥식으로 표현된 산줄기 묘사 방식, 간략히 표현한 주요 도로, 치소 내의 주요 건물들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앞에서 본 《조선지도》의 「부평」과 유사한 것이다.

이 지도의 큰 특징은 군현 간의 행정 경계를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어 군현별 관할 구역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지명도 자세한 편이며 서해안에 표시된 섬들의 수도 다른 어떤 고지도들에 비해 많다. 《광여도》에서는 유인도를 구별해서 표시하였는데 이 지도에서는 섬 안의 지리 정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다른 고지도와 달리 굴포천은 직포천(直浦川)으로, 계양산은 안남산으로 각각 개칭되어 있고, 금륜역은 계양산 북쪽이 아닌 남쪽에 잘못 표시되어 있다.

주요 산으로는 안남산과 원적산, 고개로는 인천으로 넘어가는 성현과 지금의 서구 지역으로 넘어가는 경명현이 보인다. 석곶 봉수도 표현되어 있고, 행정 지명들도 모두 표시되어 있다. 먼 이름의 경우 모월곶, 석곶, 마장, 상호정, 하오정 등 형태소를 제거한 채 이름소만 기입하였다.

(5) 《1872년 군현지도》 「부평」 (19세기 후반, 회화식)

이 지도는 지도의 왼 편에 바다가 위치해 있고 지도 사방 가장 자리에 동서남북의 방위를 표시한 정방위 지도이다. 서해와 한강은 물을 의미하도록 파랗게 채색하였고, 선박이 지나는 수로를 짙은 파랑색으로 표현하는 섬세함을 보이고 있다. 주요 산 이름이 기입된 위치와 산줄기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산줄기의 높낮이를 최대한 표현해 보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부평 지역의 관할 범위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서구 일대와 김포시 및 부천시 일부이다.

지도의 중앙부에 계양산이 있고, 계양산 아래에 ‘부내(府內)’라는 지명이 기입되어 있어 이곳이 치소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지명은 치소를 중심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가며 기입하였다. 다른 대부분의 고지도들처럼 산줄기는 연맥식으로 표시하고 있고, 계양산, 원적산, 축곶산, 원통산, 대산 등의 주요 산 이름들을 곳곳에 기입하였다. 치소 안팎의 주요 관아 건물들은 표현하지 않았다. 치소 남쪽에는 부평의 대표적 비보 풍수 경관인 ‘조산(造山)’을 네 곳이나 표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전의 다른 고지도들에서는 조산이 두 곳만 확인된다.

도로의 경우, 다른 고지도들처럼 단순화하여 표시하기보다는 굵은 형태로 실제 형태를 반영하듯 구불구불하게 그리고 있다. 치소에서 서북쪽으로 경명현을 넘어 김포현으로 가는 도로, 서쪽으로 구십현을 넘어 서해안의 석곶면으로 가는 도로, 남서쪽으로 정정현 및 성현을 넘어 인천으로 가는 두 개의 도로, 남쪽으로 굴포천을 건너 시흥으로 가는 도로, 동쪽으로 굴포천을 건너 양화진으로 가는 도로, 동북쪽으로 고산성 동쪽 산록을 지나 김포현으로 가는 도로 등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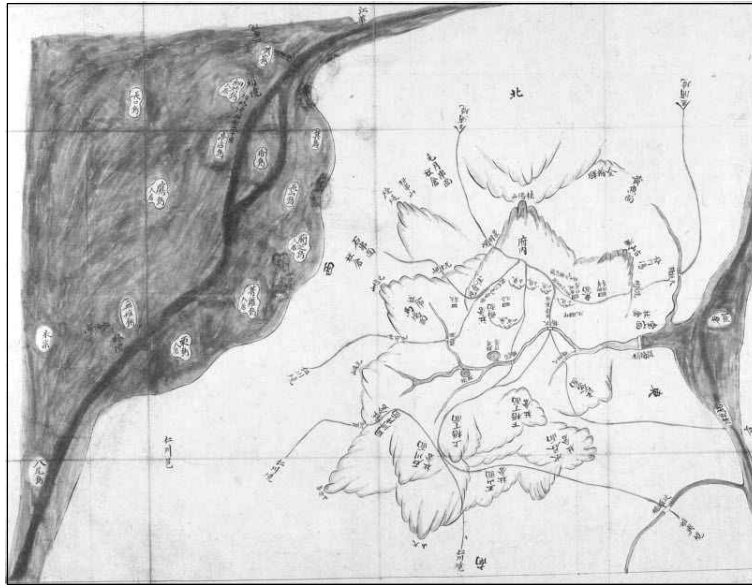


그림 17. 《1872년 군현지도》 「부평」의 주요부



그림 18. 《1872년 군현지도》 「부평」의 주요부 상세도

굴포천을 건너는 교량들도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굴포천 하류로부터 상류를 향해 굴포교(掘浦橋), 대교(大橋), 대장교(大壯橋), 황교(黃橋) 등이 보이고, 한강의 다른 지류 변에도 기탄교(岐灘橋), 화철교(火鐵橋) 등의 교량이 확인된다. 굴포천 유역에는 이 일대의 저습지 개간 역사를 보여주는 유등방축(柳等防築), 군가방축(郡哥防築), 동림방축(東林防築) 등의 방축들이 표시되어 있다. 그 밖에 치소 북쪽의 김포 방면에는 역원인 금륜역(金輪驛), 서쪽으로는 축곡산 봉수가, 고산성에 인접한 북쪽으로는 장시인 발문장(發門場)이 각각 확인된다.

바다에는 기도(箕島), 난지도(蘭芝島), 세어도(細於島), 울도(栗島), 응도(鷹島), 장구도(長口島), 장산도(長山島), 팔미도(八尾島), 호도(虎島), 황산도(黃山島), 청라도(靑蘿島), 정점도(亭店島) 등의 섬들이 표시되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인지의 여부가 기입되어 있다. 행정구역인 당산면(堂山面), 동면(東面), 동소정면(同所井面), 마장면(馬場面), 모월곶면(毛月串面), 상오정면(上梧丁面), 서면(西面), 석곶면(石串面), 석천면(石川面), 수탄면(水呑面), 옥산면(玉山面), 주화곶면(注火串面), 하오정면(下梧丁面), 황어면(黃魚面) 등을 형태소와 함께 모두 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 중 마장면, 서면, 하오정면, 수탄면, 옥산면, 석천면, 동소정면 등지에는 사창(司倉)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기혁, 2007,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 지도의 발달 연구,” 문화역사지리 19(1), 19-36.
- 양보경, 1995, “군현 지도의 발달과 《해동지도》,” 『해동지도』 (해설·색인),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60-73.
- 이찬, 1981, “한국 고지도에서의 좌표 체계,” 한국과학사학회지 3(1), 3-11.
- 전중환, 2002, “역사지리학 연구의 고전적 전통과 새로운 노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215-252.
- 전중환, 2008, “조선후기 군현지도에 재현된 공간인식과 공간의식,” 문화역사지리 20(2), 112-126.
- Jeon Jong-han, 2008, Spatial Consciousness Represented in Provincial Maps from the Late Joseon Period, Korea Journal, Vol. 48 No. 1, 106-135.



인천광역시 검단 선사박물관
Geomdan Prehistory Museum

